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회의 LA 개막

6월 25일~27일 옥스퍼드 팰리스 호텔 개최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제30차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평의원회의가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LA 한인타운에 위치한 Oxford Palace Hotel에서 열린다. 백신 보급이 확대되면서 코로나 팬데믹의 위세가 점차 꺾이고 각 지역의 많은 동문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된다. 첫 날 열리는 세미나에는 고종성(사대 75) 박사, 황경순(공대 87) 박사, 장소현(음대 65) 미술평론가가 각 분야의 수준높은 강연을 진행할 예정이다. 고종성 박사는 서울대 사대 화학교육과를 졸업하고 KAIST에서 석사학위를, 미국 Caltech에서 생물유기화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가 발명한 당뇨병 치료제 "제미글로"는 한국신약개발 30년 역사상 최고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암치료를 위한 정밀의약 어디까지 왔는가?"를 주제로 강연할 예정이다. 황경순(공대 87) 교수는 매튜 반 왕클 리전트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탄소저감을 위한 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제와 차세대 반도체 및 배터리 소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 "슈퍼컴퓨팅을 통한 첨단 신소재 개발 가속화"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장소현(미대 65) 미술평론가는 서울대 미술대학 응용미술과와 일본 와세다 대학교 대학원 문학

부(동양미술사 전공)를 졸업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한인사회에서 시인, 극작가, 미술평론가, 언론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에서는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추상미술이란 무엇인가,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 한국의 추상미술과 단색화 등을 슬라이드로 작품을 소개한다. 둘째날인 26일에는 제30차 평의원회의를 진행, 차차기회장 선출과 이취임식이 있을 예정이다. 이후 축하공연, 만찬, 공로패 수여와 지방장회의의 순서가 진행된다. 대회의 마지막 날인 27일에는 제16대 회장 초청 조찬이 마련되며, 골프와 테메쿨라 지역관광이 계획되어 있다. 이번 대회는 그동안 만나지 못했던 동문들과 오랜만에 친교를 나눌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많은 동문들의 관심과 참여를 부탁한다.

■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 회의**
일시: 2021년 6월 25일(금) ~ 27일(일)
장소: Hotel Oxford palace /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 (213) 389-8000

■ **호텔예약안내**

평의원회의의 참석 동문들을 위해 6월11일까지 예약하는 분들은 King과 Double을 일괄적으로 1박 \$100 + tax의 특별한인 가격을 적용 받습니다. 호텔방 수수료가 제한되어 있으니, 신속한 예약 신청을 바랍니다. Email : snuaausa30@gmail.com(성명, 지부명, 단과대, 입학년도, 전화번호, Email 주소, Check in/out Date 기재 요망)

■ **문의** 714-260-5483 강호석(차기 사무총장)
818-321-2214 이호진(차기 총무국장)
213-210-4429 김자성(차기 홍보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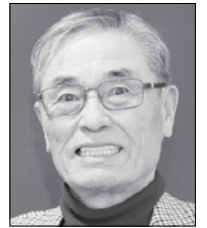
■ **공항 교통편 안내**
공항 도착 후, 한인 Call Taxi, Yellow Cap 또는 Uber, Lyft등을 이용하면 됩니다.
(한인 Call Taxi: 김씨 213-383-0002) / 모던 213-300-1119) 공항에서 호텔까지는 약 16 Mile (약25분)입니다.
COVID-19관계로 직접 공항까지 영접을 못하여 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OVID-19 관련 안내**
현재의 LAC DPH 방역수칙에 의하면, 참석자의 백신정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홍선례 문화국장>

다이아몬드

종신이사 추대

10만달러 쾌척



(고)고광선 (공대57)

(고) 김광선 종신이사는 서울고를 거쳐, 서울대학교 공대 토목과(57-61)를 졸업 후, 한국전력에 입사하여 춘천수력 발전댐 건설 책임자로 근무했다. 그 후, 월남소재 미국 건설 회사에서 일했으며, 1967년 오레곤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 Civil Engineering Master Degree를 수상했다. 1970년부터 5년간 워싱턴주 교통국에서 고속도로 교량 설계 및 공사 감독책임자로 활약했다. 1994년말 성수대교 사고로 한국 교통부의 초청을 받아 1999년까지 안전진단 관련 자문역할을 하다, IMF로 미국으로 돌아와 은퇴했으며 2020년 12월 22일 생을 마감했다. 모교에는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후원을 해왔으며, 이번 5월 미망인이 미주동창회에 10만불을 지원함으로써 최초의 다이아몬드 종신이사로 추대되었다. 2남 1녀를 두었으며 손주 2명이 있다. 장녀는 클리블랜드 음대에서 teaching을 하고 있으며, 큰아들은 스탠포드 대학을 나와 소설 위커로 일하며, 막내 아들은 증권회사에서 근무 중이다.

NON-PROFIT
US POSTAGE PAID
LANSDALE, PA
PERMIT No. 113

미주동창회 유지, 성장 위하여 동문여러분의 참여, 후원 요청!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1년: \$75 / 2년: \$150 / 후원금: \$100 ↑
PAYABLE TO SNUAA-USA 아래의 주소로 회비 납부 바랍니다

SNU ALUMNI ASSOCIATION USA |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제 30차 평의원회의 환영사

“소통하고 비전을 키우며, 새로운 10년을 준비하자”



신웅남
미주동창회 회장

존경하는 미주동창회 평의원 그리고 동문 여러분,

그간 평안하셨는지요?
오랜 펜데믹 시간을 어렵게 넘기고
미주동창회는 오는 6월 25일 부터 27일 까지(2박 3일) 남가주에서 대면으로 제 30차

전국 평의원 회의를 개최합니다.

모교에서는, 한국 정부의 코로나 방역의 까다로운 상황하에서도, 한국 총동창회 임원 여러분이 바쁘신 일정을 잠시 뒤로 미루고 참석하신다는 연락을 보내왔습니다.

동 평의원회의는 15대, 16대가 공동으로 주관하며, LA 현지에서 열심으로 준비하는 차기회장단은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호텔측(옥스포드 팔레스)에 호텔룸 블락과 회의장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참석 인원의 개런티가 필요한 상황이라 평의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예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작년 온오프라인으로 치러진 29차에 비해, 모교 및 한국총동창회임원님들이 참석하고 외부 인사를 초청하는 이번 행사에는

평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석으로 풍성한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이번 평의원 회의에서는 세미나를 비롯하여, 회칙 & 재정 & 행정 관련 중요 안건들이 상정되어, 가까운 미래에 예견되는 동창회가 직면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대안도 심도있게 토론되어질 예정입니다. 또한 향후, 2 년후에 동창회를 맡아 책임질 차차기(17 대) 회장에 대한 선거/인선 안건도 다루어질 것입니다.

선조 때 영의정 서애 류성룡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예견되었지만, 국론의 분열로 참담하게 패한 <임진왜란>이 끝난 후, 그 난을 기록하여 징비록(懲錄)을 남겼습니다. 그 책은 “자신이 겪은 환난을 교훈으로 삼아, 후일 닦쳐올지도 모를 우환을 경계토록” 하기 위해 쓴 글입니다. 미주동창회도 10여년 전부터 동문들의 고령화라

는 염속한 난관의 도전이 기다리고 있어 서애의 지혜를 교훈 삼아야 할 때라 여겨 집니다.

시인 칼릴 지브란은, “인간의 상상과 현실 사이에는, 커다란 공간이 있다. 그 공간을 건널 수 있는 힘은, 간절한 마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중히, 간절하게 지켜야할 동창회를 염두에 두면, 우리 동문들이 모여 당면한 문제들을 함께 풀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대 동문, 평의원 여러분, 이번 평의원 회의에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오랜만에 직접 만나 대화하고 비전을 키우며 가족같은 동문간의 안부와 정담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 30차 평의원회의 강사진

슈퍼컴퓨팅을 통한 첨단 신소재 개발

황경순 매튜 반 잉클 리전트 석좌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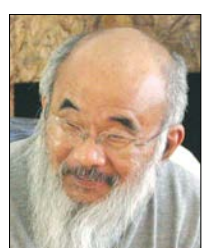
황경순(공대 87) 교수는 화학공학과를 수석 졸업하고 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 미국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응용물리학으로 석사학위와 화학공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와 캘리포니아 공대에서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을 거친 후 2001년 텍사스 오스틴 대학교 화학공학과 조교수로 임용되었다.

정년보장 부교수로 조기 승진한 후 정교수를 거쳐 현재 매튜 반 잉클 리전트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황교수는 고성능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원자단위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물질의 특성과 반응메카니즘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첨단소재 및 공정기술 개발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다. 현재 세계 유수의 기업들과 탄소저감을 위한 고효율 이산화탄소 포집제와 차세대 반도체 및 배터리의 소재기술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과 삼성전자 등 한국기업들과도 기술자문 및 산학협업을 통해 활발히 공동연구 개발을 하고 있다.

한국화학공학회 미국지부 설립과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젊은 한인과학기술자들을 위한 SEED 워크숍을 2019년도에 리딩하는 등 재미한인 과학기술자협회 활동도 꾸준히 하고 있다. 서울대 공대 동창회장상, 캘리포니아 공대 C.G.Economou Memorial Award, 미국 전기화학회 F.M. Becket Memorial Award, 미국 국립과학재단 CAREER Award 등의 수상 경력을 가지고 있다.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

장소현 작가



장소현 작가는 서울대 미대 65학번으로 일본 와세다대학교 대학원 문학부를 졸업했다. 극작가이자 시인이며 미술평론가로 활동중인 장 동문은 20대에 글쓰기를 시작해 지난 45년간 희곡뿐 아니라 장르 불문 전방위적 글쓰기를 해왔다. 지난 40년간 LA

한인사회를 지칭하는 말로 쓰일 만큼 큰 반향을 불러온 '서울시 나성구'(1979), '사탕수수 아리랑'(2010) 등 시집 6권과 소설집 '형영강'(1980), 콩트집 '콩트 아메리카'(1990)와 번역서인 '중국미술사'(1979)를 비롯 '거리의 미술'(1984), '아메데오 모딜리아니'(2000), '문화의 힘'(2017) 등 10여 편의 미술서까지 한국 문단에 이런 작가가 또 있을까 싶을 만큼 왕성한 집필활동을 해왔다. 고원문학상과 미주가톨릭문인협회(회장 정찬열)에서 시상하는 문화비평서 혹은 예술 평론으로 분류될 수 있는 장소현 극작가의 저서 '문화의 힘'을 수상작으로 선정해 평론상을 받은바 있다. 벨리 코리아뉴스를 30년 넘게 발행했고,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 진행자로도 활동했다. "추상미술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추상미술이란 무엇인가, 추상미술의 탄생과 전개, 한국의 추상미술과 단색화 등을 슬라이드로 작품을 소개하며 강연한다.

암치료를 위한 정밀의약 어디까지 왔는가?

고종성 제노스코 대표



고종성 대표는 사대 75학번으로 현재 Genosco President 겸 CEO를 맡고 있다. 고 대표는 국내 신약개발 산업의 초석을 다진, 많은 신약개발자들이 '멘토'로 삼고 있는 인물이다. LG화학(옛 LG생명과학) 시절 당뇨병신약 제미글로 초기 개발을 진두지휘했던 그는 서브프라임으로 전세계가 시름하

던 2008년 혈혈단신으로 미국 보스턴에 건너가 당시에는 생소한 세미 비추얼(Semi-virtual)게임의 바이오맥을 시작했다. 그가 현지에서 주도한 재미제약산업협회, 재미한인과학자 네트워크는 국내 신약개발 생태계를 풍성케 하는 혁신신약 살롱 탄생의 모티브 역할을 했다. LG화학의 DPP4 계열 당뇨신약 '제미글로'는 국내 허가를 받은 지(2012년) 8년만인 지난해 국내 신약 최초로 연 매출 1,200억원을 돌파하는 기업을 토했다.

■약력
2010-2018: KABC(재미제약산업협회)공동창설자 및 President
2007-2008: 국가 글로벌 항암사업단장
2002-2007: LG 화학 신약개발연구소장/Vice President
1999-2001: 국가지정연구소실장
1995-1996: UC Berkeley 방문연구원

■주요성과
신약출사: 폐암치료제 Leclaza & 당뇨치료제 Zemiglo
■학력
KAIST 석사, CALTECH 박사

포상자 명단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단체/학번, 거주지, 공적사항, 구분. Lists award recipients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Table with 5 columns: 이름, 단체/학번, 거주지, 공적사항, 구분. Lists award recipients for the Seoul National University Alumni Association.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신영남 미주 동창회장상 수상자				
이름	단대/학번	거주지	공적사항	구분
박창규	약대 59	남가주	귀하는 미주 동창회에 배려와 재정 후원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정상진	상대 59	네브라스카	귀하는 미주 동창회에 배려와 재정 후원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연영재	공대 74	뉴욕	귀하는 제15대 미주 동창회 사무 총장과 편집위원으로 회장을 보좌함은 물론 미주 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헌신적으로 봉사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최형무	법대 69	뉴욕	귀하는 제15대 미주 동창회 법률 고문과 편집위원으로 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문현호	음대 02	뉴욕	귀하는 제15대 미주 동창회 총무국장과 편집위원으로 학업을 병행하는 중에도 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한경진	음대 02	뉴욕	귀하는 제15대 미주 동창회 재무국장과 편집위원으로 동창회 운영과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박정원	편집장	뉴욕	귀하는 미주 동창회 편집장으로 헌신하며, 전문경험과 전문지식으로 회보를 한층 향상시킴으로 동창회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이지희	간사	뉴욕	귀하는 미주 동창회 간사로서 열성과 성의를 다해 동창회의 운영에 헌신함으로 동창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윤제중	농대 55	알래스카	귀하는 지역 회장으로 오랫동안 헌신 봉사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그 노고와 공로를 기려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성낙길	문리대 77	하와이	귀하는 지역 회장으로 오랫동안 헌신 봉사하면서 동창회 발전에 크게 공헌하셨습니다. 이에 그 노고와 공로를 기려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고애자	음대 57	뉴욕	귀하는 미주 동창회에 배려와 재정 후원으로 동창회의 발전을 위해 지대한 공헌을 하였습니다. 이에 그 공을 치하하기 위해 이 상패를 드립니다.	공로상



박종성 (서양사 82) 한국 동창회 노년위원

/ 관약춘추 /

경제적 자유를 얻는다는 것

여러 해 전 일이다. 대법관을 지낸 이가 되었다. 작은 편의점에서 일하는 장면이 목격됐다. 부인이 운영하던 곳에서 점퍼를 입고 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힌 것이다. 사람들이 놀랐다. 대법관을 지낸 뒤에는 많은 보수를 주는 유명 로펌에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부귀영화를 버리고 소박한 생활로 돌아간 것에 존경을 표했다. 6개월 뒤 새로운 기사가 실렸다. 그가 편의점을 그만두었다는 것이었다. 이유를 물었다. 그는 "무항산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이라고 답했다. 거칠게 해석하자면 '돈이 없으면 바른 마음을 견지하기 어렵다'는 뜻

이다. 더 줄이면 '돈이 필요했다'는 말이다. 자고이래로 재물욕은 줄어들지 않았다. 달라진 게 있다면 예전에는 욕심을 걸고 드러내는 데 주저했으나 요즘에는 숨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세상이 변했으니 나쁘다고 할 수도 없다. 서점가에는 재테크 서적이 베스트셀러 상단에 오른다. 해외의 전설적인 주식투자가, 국내에서 많은 부를 쌓은 개미 투자자, 증권사 전문가의 책까지 다양하다. 부동산도 마찬가지다. 유망 투자지역을 꼽아주고 절세방법도 상세히 알려준다. 비법을 알려준다고 하는 유명 유튜브의 채널은 구독자가 100만명을 넘는다. 집값이 갑

자기 뛰여 '벼락거지'가 되는 상황에 재테크 열풍은 더욱 거세다. 벼락부자가 되지는 못할망정 하루아침에 거지로 전락하는 상황에는 참을 수 없던 것이다. 많은 이들은 돈에 목매는 이유에 대해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돈의 굴레에서 벗어나 자신이 꿈꾸었던 삶을 살겠다는 뜻이다. 그것이 성공이라고 말한다. 부를 성공과 행복의 문으로 들어가는 입장권으로 여긴다는 얘기도 있다. 결의도 굳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시간과 노력, 몸을 갈아 넣겠다고 다짐한다. 인생에 관한 연구가 있다. 1930년대 말 시

작한 하버드대생 268명을 포함한 700여 명의 삶의 연구다. 결론은 너무나 평범했다. 흔히들 말하는 물질이나 학벌, 명예 등은 성공의 조건에 없다. 대신에 고통에 적응하는 성숙한 자세, 교육, 안정적 결혼, 금연, 금주, 운동, 적당한 체중 등이 성공의 키워드였다. 어떤 길이든 각자가 행복이라고 여기는 일을 추구하는 것은 훌륭하고 옳고하다. 그러나 인생은 장기레이스이다. 방향을 잃을 수도 있다. 힘이 들 때 잠시 숨을 고르며 지나온 길을 돌아보는 시간도 필요하다. 영동한 방향으로 달려간 뒤 되돌아오기에 인생은 너무 짧기 때문이다.

/ 정치 칼럼 /



백 순(법대 58)

미국과 중국의 경쟁관계 대만해협의 충돌 가능성

21세기 이후 국력, 경제, 군사력, 체제 등 제반분야에서의 경쟁이 미국과 중국간에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해협이 '지구상 가장 위험한 곳' (The most dangerous place on Earth)이라고 대만해협에서 미국과 중국의 충돌 긴박성을 최근 The Economist지(5월1일2021년)가 논평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중국본토에서 100마일 떨어져 있고 인구 2천4백만의 대만이라는 주장이다.

대만해협이 미-중의 충돌관계로 형성된 것은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1950년 6월25일 북한의 남침으로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은 아시아 공산주의의 확장을 저지하는 일환으로 장계석 국민당정부의 대만을 모택동 공산국가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6월 27일 "미국은 대만을 공격으로부터 보호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1979년 1월1일 미국이 중화인민공화국을 정식 승인하면서 "하나의 국가와 두개의 체제"(One Country and Two Systems), 그리고 대만의 "평화적 통일" (Peaceful Unification) 이라는 현상유지의 "균형관계" (Equilibrium Relation) 를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근래 대만해협에서의 전쟁발발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 최근 국제관계 소식통이 전해주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대만해협에서 전쟁가능성의 상황, 비전쟁 현상유지균형을 지켜야 하는 이유, 그리고 현상유지균형을 지속할 수 있는 전략 등등을 점검해 보기로 한다.

■전쟁가능성의 상황

첫째 상황은 대만해협에서 중국대 대만, 중국대 미국의 군사력이 매우 폭넓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고, 중국이 대만에 대하여 심리전을 계속하고 있으며, 사이버공격과 그릇된 정보 캠페인 등등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에 비해 대만의 군비, 지상군, 전투함, 군사비행기등이 겨우 4.8%, 8.5%, 19.8%, 18.4% 밖에 미치지 못하고, 중국의 자유육군해군 함정이 360척인 반면 미국은 297척이 있으며, 금년 4월 23일 시징핑은 구축함, 헬레콥터 전투함, 그리고 탄도미사일 잠수함등 전투함을 시추하여 군사력의 확장을 과시한 바 있다. 2020년 중국전투기가 대만항공방위확장존을 380회, 금년 4월12일에 25중국 전투기가 그 존을 비행하였으며, 금년 4월5일 중국해군항공모함

이 정규적으로 대만해협을 순항한다고 발표하는 등 중국은 심리전과 회색지역전쟁 전략을 계속하고 있는 현실이다. 더 나아가 중국은 대만사회를 분열시키고 혼란을 초래하기 위하여 사이버공격과 그릇된 정보캠페인을 계속하고 있다.

셋째 상황은 중국의 안보학자들이나 군사 전문가들이 시징핑 정권시대에 대만회복이 이루어 질 것을 확신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안보학자들이나 군사전문가들이 시징핑의 집권기에 대만의 정복을 이루어

여야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이다.

하나의 이유는 중국의 패권 및 체제확장을 저지해야하는 이유이다. 미국의 제7함대가 대만해협의 위기시 출병하지 아니하여 중국이 대만을 군사력으로 점령한다고 하면 중국은 즉시 아시아의 패권세력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될 것이 분명하게 되기 때문이다.



대만해협 지나는 미 해군 머스틴함

둘의 이유는 경제적인 혜택을 보호 및 유지하여하는 이유이다. 대만은 첨단기술, 특히 반도체산업의 세계적인 중심이기 때문이다. 세계 칩생산 수익의 84%를 점하고 있는 세계최고 칩메이커인 대만 반도체제조회사(Taiwan Semiconductor Manufacturing Company, TSMC) 가 대만에 있는 것이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여 TSMC의 생산이 중단하게 된다면 세계 전자사업은 계산할 수 없는 손실을 보게 될 것이 분명할 것이다.

■현상유지균형의 전략

그러면 중국의 패권 및 체제확장을 저지하고 세계전자산업의 경제적인 손실을 막기 위하여, 대만해협에 대한 현상유지적인 균형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고,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미중관계에 있어서 미국은 어떠한 전략을 수행하여야 하는지 미중관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요약해 보기로 한다. 요약하면 4가지의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미·중 경쟁 심화... 대만해협 충돌 가능성 제기 충돌시 중국 패권 차지, 반도체 등 세계경제 위기 무력전시 미-동북아시아 동맹강화 등 전략 필요

첫째 전략은 미국이 중국의 대만침공을 막기 위하여 무력전시를 하는 전략이다.

둘째 전략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등 국가들과 동북 아시아의 동맹을 강화하는 전략이다.

셋째 전략은 미국이 중국에 미국의 입장을 명확히 알려 주는 회담을 이행하는 전략이다.

넷째 전략은 미국이 대만의 전자산업과 첨단산업을 발전하고 세계화시키기 위하여 세계적인 직접투자를 선도하는 전략이다.

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것이 2019년 10월 그들과의 회담에서 미국 스탠포드대학의 오리어나 스카이라 마스트로 교수가 확인한 바 있다.

■현상유지균형의 이유

역사적으로 중국은 대만해협의 전쟁을 시도한 적이 3차례 있었다. 1954-1955년, 1958년, 그리고 1965-1966년의 중국의 무력도발이 그 것이다. 그러면 현재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지역인 대만해협에서의 전쟁충돌을 피해야하는 이유, 즉 현상유지의 균형(Status Equilibrium)을 지속하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SNUAA-USA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30차 평의원회의 남가주 개최

S N U A A L U M N I A S S O C I A T I O N U S A

2021년 6월25(금)~27(일)

옥스포드 호텔 Oxford Palace Hotel | 745 S Oxford Ave, Los Angeles, CA 90005

남가주에서 열리는 제 30차 평의원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세가 급속히 꺾이면서 6월까지는 미국내 대부분 일상생활이 정상화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에 남가주 미주동창회 차기 회장단, 임원진, 동문들은 평의원회의 위생적인 진행과 참석자들의 만족스런 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동문들께서 이번 평의원회의에 참석하시어 서울대 미주동창회의 단합과 도약의 또다른 계기를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6월 25일 (금)	6월 26일 (토)	6월 27일 (일)
1:00 PM - 2:30 PM 등록 접수	9:00 AM - 12 NOON 제30차 평의원회의	8:00 AM - 9:00 AM 제16대 회장 초청 오찬
2:30 PM - 5:00 PM 세 미 나 (고종성) (황경순) (장소현)	12:30 PM - 2:00 PM 서울 총동창회 초청 오찬	10:00 AM 지역 관광/골프
5:00 PM - 6:00 PM 휴 식	2:00 PM - 3:30 PM 차차기 회장 선출	
6:00 PM - 10:00 PM 만 찬	3:30 PM - 4:30 PM 이·취임식	
	4:30 PM - 5:30 PM 소 음악회	
	6:00 PM - 10:00 PM 만찬, 공로패 수여	
	10:00 PM - 11:00 PM 지부장회의	






이·취임식 공동준비위원장

제 15대 회장 **신응남 (646-523-9606)**
 사 무 총 장 **연영재 (201-233-7108)**
 총 무 국 장 **문현호 (646-770-7028)**

제 16대 회장 **노명호 (626-991-4457)**
 사 무 총 장 **강호석 (714-260-5483)**
 총 무 국 장 **이호진 (818-321-2214)**



종신이사추대



종신이사님들의 후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서울대 미주동창회 -

골드 이사



양남주
(명예이사 예정)

고 고광선 종신이사의 부인인 양남주 명예이사(예정)는 경기 여고를 졸업후 무역회사에 근무하다1967년 미국으로 유학, 예 버그린 state university에서 행정학/회계학 공부를 했다. 그 후 워싱턴주 주지사 사무실에서 직원관리 및 회계 행정업무 했으며 Asian-American Affairs commissioner 로 근무하다 은퇴했다. 은퇴 후, 남편과 함께 해외여행, 정원 가꾸기 등 취미로 풍요로운 노후생활을 누려왔다. 특기 사항은 가족 중 46학년부터 02학번까지 9명의 서울대 동문이 있다.



김정희
(음대 56)

김정희 종신이사는 경기 여고와 서울음대를 졸업 후 1961년 미국에 건너와 루즈벨트 대학에서 음악 교육학을 공부했다. 1972년, 부동산 투자 개발사를 설립하여 서부지역 개발에 참여하였으며, 1984년에는 KC 빌딩 건축 모금운동에 공헌 및 강연을 통해 후원하며 도왔다. 또한 한국학 공부하는 대학원 학생을 지원하는 코리아 "헬로십" 단체에 많은 기부를 하므로, 1997년도, "지역개발" 참여 공로 상을 받기도 했다.

실버 이사 부부



김태형
(의대 57)

김태형 종신이사는 서울 의대를 1963년에 졸업하고 공군 군의관을 거쳐 보스턴 Children's Hospital 과 뉴욕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의 수련의를 거쳐 Emory 의과대학에 종신 교수로 재직 중 1997년에 서울 아산병원의 초청을 받아 귀국했다. 한국에서 대한 조혈모세포이식학회 회장, 골수 이식 조정위원회 위원장 그리고 소아 뇌종양학회 초대 회장을 지냈다. 매년 소아뇌종양 우수 연구자에 수여하는 아해 우수 연구상도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다. 국립암센터에서 소아혈액종양골수이식팀도 이끌었다. 현재 미국으로 돌아와 Emory 의과대학 명예교수로 있다. 취미는 Marathon 이며 36회 완주했고, Boston marathon을 3번 달렸고, 소아암 기금조성을 위한 춘천 마라톤을 7번 달렸다. 1996년 Atlanta Olympic 때는 KBS 방송국 Marathon 해설위원을 맡았고 송화봉송도 했다. 그리고 최광도 무술 2단의 소유자다. 한국어 교육에 관심이 커 제2대 애틀랜타한국학교 교장을 지냈고, 지금까지 이사로 봉사하고 있다. 조지아주 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수년간 봉사했고, 조지아 한인 민주당 대표를 맡기도 했다. 최근에는 문학에 심취해 작년에는 하이텍커 문학상 시부분 대상을 받았다.



김경숙
(사대 64)

정(김)경숙 종신이사는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학과를 1966년에 졸업하고, 문리대 어학연구소 국어강사로 근무했다. 1969년 Smith college 대학원에서 특수교육학을 수료했고, Vermont 주 소재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에서 외국인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쳤다. 1981년 애틀랜타한국학교 개교 때부터 20년간 후세 교육에 전념하면서 다년간 교장으로 근무했다. 91년부터 3년간 동남부지역 한인학교협의회 회장을 맡기도 했다. 2002년 모교 이화여고에서 "이화를 빛낸 상"을 받았고, 은퇴 후 2005년 한국에서 수필가로 등단하고, 미국으로 돌아와 미주 조선일보 수필칼럼을 썼다.



김현영
(수의대 58)

김현영 종신이사는 서울대 사대부중고 졸업, 58년 서울대 수의대를 입학했다. 이후 서울대 보건대학원을 졸업 후 서울여대 강사, 삼육대 조교수를 거쳐 미국으로 건너와 University of Georgia(UG), University of Pennsylvania(Bovine Mastitis)를 졸업했다. 수의학 박사학위를 취득 후 펜실베이니아 주정부 수의병리연구관으로 33년간 근무했으며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초빙교수로도 재직했다. 이후 안정된 공무원직을 사임하고 아메리칸 드림을 뛰어 넘어 '김영드림'을 성취하기 위해 인생을 180도 전환시켜 과테말라 마야 원주민 농촌마을에서 아내(이덕주 선교사)와 함께 부부 선교사로 동역하고 있다.

미주동창회 재정지원 3백만불 모금 캠페인

Century Foundation

종신이사 참여 릴레이 전개

"다함께 힘을 모아주십시오"

/부고/ 참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 이탁성(공대 56)



지난 4월 30일, 이탁성(공대 56) 동문이 일기로 소천하셨다. 고 이탁성 동문은 1937년 경남 밀양 출생, 부산고교와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을 거쳐 연세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1982년 도미했다. 장로성가단, 서울대 합창단에서도 활동한 바 있다. 5월 12일에는 Rose Hills Memorial Park에서 하관예배가 동문들과 친지들이 모인 가운데 치러졌다. 슬하에 부인 이석씨와 2남1녀를 두고 있다.

(고) 윤용길(공대 55)



윤용길 동문이 향년85세로 하나님결로 떠났다. 충남 공주 출생, 1959년 서울대 공대 화공과를 졸업했으며 62년 이보경씨와 결혼했다. 윤 동문은 59-67년 총주비료공장근무, 경인에너지 기획실장, 미국 Stearns Roger Engineering Co. in Denver, Colorado 근무(LPE), 86-88년 럭키 엔지니어링 기술고문 임원 등을 역임했으며 Fluor Daniel Inc, in Irvine, CA, Engineer로도 근무했다.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총회 성황리 개최

팬데믹 후 첫 공식 행사... 200여 동문, 마스크 벗고 '특별한 만남'
저소득 후배 후원 음악회 등 행사...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 참석



최용준 남가주 회장

남가주 총동창회 정기 총회가 지난 5월 22일 토요일 저녁 LA에 위치한 S-Village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최용준(수의대 81)남가주 총동창회 회장은 팬데믹으로 인하여 무기한 연기되던 신

년 정기총회를 사회적 상황을 반영하고 동문들의 백신 접종 시기 등 요건들을 고려하여 일찌감치 야외 행사로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준비해 왔다.

이번 정기 총회는 팬데믹 이후 공식적인 첫 대면 행사였다.

최 회장은 "지난 2월에 회장 이취임식이 있었고 4월에 골프 토너먼트가 있었지만 이취임식은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필요 인원만 모일 수 밖에 없어서 동문들은 줌과 유튜브 라이브를 통해서 지켜봐야만 했다"며 "골프 토너먼트 대회가 첫 대면 행사이긴 했지만, 모든 동문이 아니라 골프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만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로 첫 대면 행사는 이번 정기 총회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행사장소를 위해 사유지를 제공 등 많은 도움을 준 남가주 총동창회 상임 고문 한귀희(미대 68)동문께도 인사를 전했다.

이러 김용진(수의대 91) 총무는, "지난 4월 골프 대회 때만 해도 회장님이 모든 참가자들에게 마스크를 선물할 정도로 분위기가 많이 조심스러웠는데 이번 정기 총회는 대부분 모두 백신 접종하고 야외 행사가 넓어서 그런지 모두 즐거워하시는 분위기인 듯 하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하며 "다같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며 인사를 전했다.

약 200명의 동문이 모였지만 미리 공지했듯이 동문들이 되도록 카풀을 하거나 택시를 이용해서 참석하였고 임원들이 주차 안내는 물론 파킹까지 도와줘서 혼잡하지 않게 진행되었다.

이번 정기 총회는 오랜만에 자유로움을 만끽할 수 있는 파티였다. 3시부터 리셉션 카테일 파티가 열렸는데, 일부 동문들은 행사장 바로 옆(S-Gallery)에서 열린 미술대학 동문 작품전에 둘러 동문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하기도 하고 오랜만에 만난 동문들과 삼삼오오 모여 담소를 나누었다. 무제한으로 제공되는 에피타이저 또한 카테일 파티를 더욱 즐겁게 하였다.

정기 총회는 김용진 총무가 진행하였고 강신용(사대 70) 상임이사가 내외빈을 소개하였다. 방석훈(농대 55) 상임이사는 격려사에서 지난 골프대회에서 젊은 동문들이 많이 참가한 점 등을 예로 들며 회 회장단이 이끄는 남가주 동창회의 비전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한다고 지하였다.



신응남 미주동창회장

특별히 멀리 뉴욕에서 직접 방문한 신응남(농대) 미주 총동창회장은 축사에서 미주 동창회에서의 남가주 지부의 뛰어난 헌신과 후원에 대해 감사하며 지난 회장단들에 이어 회장단 역시 더욱 발전하기를 축원하였다.

이어 최용준 회장은 환영사에서 정기 총회를 위하여 축하 메시지를 보냈던 오세정 서울대학교 총장, 장소 협찬을 한 한귀희 상임이사, 총회에 방문한 신응남 미주 총동창회장, 그리고 모든 남가주 동문들에게 감사사를 전하고, 앞으로도 더욱 발전하는 남가주 동문회가 되자고 다짐했다.

사업 보고 및 계획 순서에서 7월 17일 모교 발전기금 모금을 위한 음악회 개최를 공식적으로 알리고 깜짝 티저영상을 발표하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이 음악회의 모 든 수익금은 저소득 후배들의 식사비 후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단체 사진 촬영에 이어 저녁 만찬이 준비되었는데, 아직 사회적 거리를 염두에 두고 모두 테이블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참가 동문 모두 오랜만에 만족스러운 모임을 가질 수 있었다.

김용진 총무와 손영아(음대 85) 부총무 진행의 2부 첫 순서로 축하 음악회가 시작되었다. 남가주 총동창회 제작 유튜브에 출연하여 문화계 역시 큰 타격을 입은 팬데믹 중에도 찾아다니는 연주회로 연주자들의 희노애락 영상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김유은(음대 07) 동문이 Beautiful Rosemary와 차르다시로 화려한 무대를 선보였고, 1부 총회에서 애국가와 교가를 선창하고 축가로 뱃노래를 불렀던 테너 김성봉(음대 99) 동문이 다시 나와 Musica Probita와 O Sole Mio로 낭만적인 무대를 올렸다.

마지막 순서는 계속 반주를 맡았던 피아니스트 이승현(음대 03) 동문과 역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장성 부부가 4 Hands로 슬라브 무곡, 헝가리 무곡, 그리고 헝가리 랩소디를 연주하여 갈채를 받았다.

정기 총회에서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은 아무래도 래플 추첨이다. 최용준 회장과 박제환(문리대 75) 차기 회장이 제공하는 한국 항공 왕복권에 대한 많은 동문들의 기대가 컸는데, 그 중 박금옥(사대 63) 동문은 당첨된 항공권을 동문회에 다시 기부하여 즉석에서 옥션을 진행하여 같은 사대 동문인 김지영(69) 상임이사가 동문회에 기부하고 항공권을 가져가는 훈훈한 장면이 연출되었다.

그 밖에 1, 2, 3등 상품으로 나온 전기 압력밥솥, 아이패드, 로봇 청소기에 동문들의 관심이 컸고 각 단체 회장들이 제공하는 선물 등 푸짐하고 다양한 선물들이 전달되었다. 그리고 모교 로고가 그려진 머그컵 세트와 달력, 그리고 정정우(수의대 74) 해대 아메리카 대표가 제공한 맛동산, 허니버터칩, 예이스 등 인기 과자 3종 세트를 차민영(미대 76) 의대 회장이 협찬한 서울메디컬그룹가방에 가득 담아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기념품으로 제공하였다. <기사=LA동창회>

뉴욕동창회 춘계 장학기금 모금 골프대회

동문 37명 참석 실력 발휘... 미주동창회 후원 동참



서울대 뉴욕동창회 (회장 조상근)에서는 5월 19일 Middletown, NY에 위치한 Walkill Golf Club에서 춘계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올해 들어 가장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모처럼 마스크도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가운데 대회를 마칠 수 있었다.

모두 37명이 참석한 이 대회에서 천병수 동문(공대70)이 84타를 쳐서 메달리스트를 하였고 켈러웨이방식으로 계산한 시상에서는 손경택 (농대57)동문이 챔피언을 수상하였다.

매년 춘계 골프대회는 장학기금 모금을 위하여 열렸다. 이날 참석한 여러 동문들의 협조로 모두 \$12,700의 기금을 마련하였다. 특히 조상근 동창회장이 \$5,000을 쾌척하였으며 미주동창회 (신응남 회장)에서 26개 지부 행사지원의 바쁜 중에도 2020년 추계골프에 이어, 이번에도 \$1,000을 후원하여 장학기금 모금에 가까이 동참했다. <기사=뉴욕 동창회>



시카고 동창회 춘계 골프대회

동문 23명 참석... 미주동창회 상품 후원

시카고 동창회 (김윤하 회장은) 5월22일 Illinois주 Hoffman Estates에 위치한 Highland Woods Golf Course에서 춘계 골프 대회가 열렸다. 이날 23명의 동문골퍼들이 참여, 즐겁고 의미있는 시간을 보냈다. Pandemic으로 인해 중지되었던 골프대회가 2년만에 다시 열렸고, 특별히 이날 자원봉사자들의 힘으로 더욱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뤘다. 이들은 골프를 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문들이 편하게 대회를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김동업 동문(사대)은 간식과 음료를 사왔고, 정승규 동문(공대)은 Cart를 타고 다니면서 골퍼들의 요구사항을 도와주었다. 백준철 동문(공대)은 Corona로 인하여 1년이상 지친사람들의 힘을 돋이기 위하여 지원해 주셨고 신응남 미주 동창회장은 우산과 골프 Ball Retriever를 후원, 대회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었다. 원인숙 동문(간호대)은 Covid-19에 대한 전

문적인 지식을 설명해 주기도 했다. 이번 친목 골프 모임에서 홍청일 (57학번), 한재은(59학번) 동문은 노익장을 과시를 하였고, 남자 골퍼 중 오병진(의대)은 Gross, 김현석(문리대)과 김훈태(문리대)는 Net, 전원일(농대)은 Closest, 노재원(문리대)은 Longest에 입상했다. 여성 골퍼 중에는 Sally Chung(간호대)은 Gross, 김승주(간호대)는 Net, Sally Chung은 Cosest, 황정수는 Longest에 입상했다. 대회가 끝난후 골프장에서 가까운 일식집에 들러서 2년만에 처음으로 왓자지껄 떠들면서 웅크렸던 가슴을 확 펼쳐볼수 있었다.

시카고 동창회는 오는 6월12일(토)에 Busse Forest, Grove #4에서 약 100명이 모일 야외모임을 준비하고 있다. 그때 시카고 지역을 방문하시고 2차 예방접종을 마친 타주 동문들의 참여하심도 환영한다. 문의 사항은 김훈태 (224-392-5613) 총무나 김동업 (773-807-9326) 섭외에게 연락 바란다.

미주동창회 회보 편집 규정

- 본 회보에 게재된 모든 기고문은 회보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 투고된 글의 게재 여부는 편집회의 등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14개월만에 첫 하이킹 모임

북가주 동창회 동호회

북가주 동창회의 하이킹 동호회에서 (일명 Zinfandel Hiking- 자주 걷는 트레일의 이름인 Zinfandel Trail을 따라 동호회의 이름을 지었음) COVID-19으로 인해 그동안 하이킹 모임이 갖지 못하였으나 5월 15일 마침내 14개월여만에 다시 모여 하이킹을 하였다. 하이킹 동호회는 그동안 Zoom 미팅을 2주에 한번씩 하면서 서로의 근황을 확인하며 사진 등을 공유하여 왔는데 이번에 CDC의 야외 모임에 대한 제약이 많이 완화되면서 평소와 같은 시각, 같은 장소에서 만날 수 있었다. 오랜만에 만난 만큼 이야기거리도 많았는데 특히 북가주 동창회의 최고참이신 한만섭 선생님께서(49, 항공, 사진) 얼마전 펠렌 책을 ("함흥, 사진으로 보는 전쟁과 재건의 역사," 논형) 함께 돌려 보며 함흥 지역의 풍속 또한 익힐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하이킹 모임이 2013년 시작된 이후 단 한 주도 거르지 않고 계속되어 왔는데 이제 다시 매주 모여 하이킹을 하기로 결정하며 참석자들이 기념 사진을 찍었다.



남가주 공대 동창회 포럼

UCLA 기계과 김창진 교수 초청

지난 5월 12일, 공과대학 남가주 동창회(회장: 남중우 공대 62)에서는 SNUCEAA Forum을 online으로 진행했다. 첫번째 연사로 UCLA 공대 기계과 김창진 교수(공대 77)를 초대했다.

남중우 회장은 "저희 남가주 서울공대 동창회에서는 서울대 동문 간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우리의 생활을 좀 더 풍성하게 만들고자 한다"며 SNUCEAA 포럼 개최의 의의를 밝혔다. 김창진 교수는 미세 전자 기계 시스템 분야

의 세계적 석학으로 그 분야에서의 발전 상황을 소개하며 함께 토론했다. 남 회장은 Forum을 통해 우리 모두와 나누며 함께 배우는 기회를 주시길 바란다며 감사 추천을 당부했다. 또한 미주 전체동문들이 참여하는 유익한 토론회장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홍선례 문화국장>



서 양 (의대 63)

/ 동문 시 /

6월을 위한 두 편의 시

철도관사의 추억

양말 뒤꿈치가 헤어지면
 할머니가 양말 속에 죽은 전구를
 얼굴이 통통한 전구를 깊숙이 집어넣고
 따끔한 바늘 끝으로 콧속 찌르면서
 내 비언어(非言語)를 기워주신다

할머니가 종아리 어깨죽지 팔꿈치며
 내 불온한 육체에 골고루 신경을 쓰시는 중
 만지작거리는 당신 셋째 손가락만 한 크기
 에무왕(M1) 총알, 내 유일한
 장난감 시어(詩語)!

끝내는 내 손안에 들어온 불발탄 에무왕 총알
 꿈무늬 복판에 새빨간 점이 찍힌 에무왕 총알

에무왕 총알 뺏족한 얼굴 외에도
 내 젊은 아버지 청량리 철도관사 앞뜰에
 떨어진
 못, S자로 구부러진 대못도
 소중한 장난감이다
 내 훌륭한 비속어(卑俗語)!



기차를 위한 감별진단

기차는 폐활량이 열라 크면서 여간 하지
 않고서야 몸뚱어리가 뜨거워지는 법이
 없대요 철로가 밑에서 받혀주는 균형감각도
 대단하잖아 기차는 땀별과 빗물에 시달리면서도
 절대 뉘두리를 하지 않는 독종이라지 기차의
 특이체질은 유전에서 왔다 합니다 기차는
 부끄러움도 없고 반성도 하지 않는대요 사태의
 앞뒤를 가리지 않고 시시때때 언성만
 높여요 기차를 조심하셔야 합니다 세차게
 달리는 기차를 밖에서 볼 때와 멋진 신사복
 차림새로 기차 안에서 확확 지나치는 창밖을
 내다볼 때를 잘 분별해서 묘사해야 된다는
 말이겠지 당신과 함께 기차를 타고 어디론지
 떠나고 싶어요



/ 미국시인 소개 /

John Dotson

John Dotson has long experience in poetry, the performing arts, and teaching. He recently edited the English translation by Sadok Masliyah of Tenants and Cobwebs, a novel written in Arabic by Samir Naqqash. John's book Singing in My Chains: Hearing Dylan Thomas at the Birth of an Age is forthcoming from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US] / Seventh Quarry Press [Wales].

LETTING GO AGAIN

Carmel Beach 2008

tides rise up to the mountains
 of the moon

seawaves arch over and disintegrate

stars flare and fade galaxies fly
 faster and faster away

such thoughts twist and erupt
 behind my eyes

birthing and dying on an unsafe planet

clouds of sand flies flit around
 kelp strands glistening like diamonds

blackbirds abruptly merge and diverge

and this is what i must tell today
 of salt sea

smell

다시 내려놓으며

카멜 해변 2008

달 속의 산까지 조수tide가
 밀려오고

바다 물결은 솟았다가 스러지고

별들은 타올랐다 사그라지고 은하수는
 점점 빨리 날아 사라져가고

그런 상상은 나의 눈 뒤편에서
 뒤틀리며 분출하고

안전치 않은 행성에서 탄생하고 소멸하며

다이아처럼 반짝이는 해초 줄기 주변을
 모래파리 떼들은 확확 날아가고

검은 새들 재빠르게 모였다 흩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내가 오늘 소금 바다에 대해
 말해야 하는 것이다

냄새

Translated into Korean by Rachel S. Rhee & Kyung Hwa Rhee

THE TRANSMUTATION OF LIFE ON EARTH

that is what it is
 this is what is happening
 now has ever been

larger than our ideas
 of our selves all Everything

how do we contain
 what is Uncontainable
 how do you wake up

to the birds in your back yard
 this new Earth our neighborhood

지상 생명체의 변환

저것은 그런 것
 이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
 언제나 그랬으며 지금도

우리들의 관념보다
 모든 것보다도 더크네

수용할 수 없는 것을
 어떻게 수용하며
 뒷마당의 새소리에

어떻게 당신은 깨어나나
 이새 세상 우리들의 새 이웃

I first met John Dotson, when, prompted by a statement from Czech poet friend, Theofil Halama, whose books John was editing. "The only bilingual publisher in the USA to consider is Stanley Barkan," he came to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35th Anniversary celebration, though we didn't have time to converse. Then we first had significant contact when John came with a motion-picture friend, Peter Santoro, to New York City to work on a film about poetry, in which he wanted to include my Russian poet friend, Alexey Dayen, other poets, and me. Our friendship became more and more

solid as he provided a venue for Welsh poets Peter Thabit Jones and Aeronwy Thomas (daughter of Dylan Thomas), on the first memorial tour of America since Dylan's death in 1953. In response to my query if he knew anyone whom Peter should particularly meet during the reading he had arranged in Carmel, John most generously offered to introduce him to a poet-artist he knew, Carolyn Mary Kleefeld, who became Peter's friend and hosts him every summer since at her Poet-in-Residence next to her home on Big Sur. Since that time, we have all together participated in nu-

merous publications and poetry gatherings in the US and Wales. John is a poet, editor, a former dean of a girls' school, a sculptor, and a presenter of creative performances. He hails from the hollers of Tennessee, where I visited John's sisters, alas without John whose schedule at that time didn't permit—definitely the most sophisticated hillbilly you could ever meet. It's been and continues to be a treasured relationship.

—Stanley H. Barkan, Poet-Publisher
 Cross-Cultural Communications



유화로 그린 자화상

<사진출처= pressenza.com>

인류애를 그리는 의사, 에티오피아를 가슴에 담고

/ 사람, 사람들 / **홍 건 (의대 64)**

지난 4월 16일 부터 27일 까지 시카고 한인문화회관에서 "에티오피아: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리라" (시편 68:31) 라는 주제로 45점의 작품전을 개최한 홍 건 동문. 2013년에 그동안 몸담아 일을 하였던 바쁜 병원의 일에서 은퇴를 하고, 에티오피아로 5년간 선교활동을 떠났다. 그는 작은 강 마을에서 수백 명의 환자들을 치료하면서, 휴식 시간에 작은 스케치북에 그곳의 사람들과 주변 풍경을 그리기 시작했다. 에티오피아를 향한 따뜻한 시선과 애정이 담긴 그의 이야기와 그림을 특별 인터뷰에서 만나본다. <편집자 주>

■ **미대가 아닌 의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초등학교 때 이미 많은 미술 대회에서 상을 받았다. 고등학교 시절, 예술을 더 진지하게 추구했지만 부모님의 반대로 포기했다. 한국전쟁 직후 예술가가 한국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제가 미술에 종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종이 뒷면에 낙서를 하면서 위안을 삼았다. 그리고 서울 의대에 진학했지만, 그것이 나의 그림에 대한 사랑을 멈추게 하지는 못했다. 의예과 부터 본과 4년 모두 6년 동안 미술부 활동을 하면서 주말이면 미술부 방에서 함춘원을 내다 보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고 매년 한번씩 전시회를 가지기도 했다.

미술의 꿈을 접은 후 의대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고등학교때 병환으로 서울대학 병원에 입원하신 아버님을 돌보는 의사들에 대한 감사함과 호기심에 의대를 진학하게 되었다.

■ **미국에 오게 된 계기는**
1970년 대에는 졸업하면 그냥 미국 가는 것이 유행이었고 뚜렷한 목적이라기 보다 잘살아 보겠다는 생각에 군의관 3년을 먼저 복무하고 무작정 도미를 하게 되었다. 월 남전이 끝나면서 전쟁에 참전했던 젊은 미국인사들이 돌아오면서, 그동안 공백을 외국 의사들이 메꾸어 레지던트를 수월히 구할 수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때는 미국의 사들과 경쟁을 하면서 웬만한 좋은 병원에서 수련의 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였다.

■ **특별히 에티오피아 선교와 에티오피아를 주제로 한 그림을 그리게 된 이유는**
1950년 북한의 남침으로 위기에 몰린 대한민국을 돕기 위해 16개국 UN 참전국중에 아프리카에서 유일한 에티오피아군(본래 황실 친위대인 강뉴(Kangnew)부대(적을 초전

에 격파한다는 뜻으로 6037명의 군인들이 참전하였고, 253번 전투에서 한번도 패하지 않은 용맹한 부대)은 한국전에서 122명의 전사자와 560명의 부상자가 생겼지만 한명도 포로가 없었던 혈맹의 나라다. 이들을 돕기 위해 서울 명성교회에서 2004년에 명성 병원 문을 열고 2012년에 의과대학을 세웠으며, 2015년에 그레이스 병동을 증축하였

다. 그래서 은퇴하기 전 20여개 나라를 단기 선교로 방문하여 물색을 하던 중 에티오피아 명성병원을 선택하게 되고, 은퇴 후 5년 동안 봉사하면서 환자를 돌보고 의과대학 생들을 가르치면서 짬짬이 그림을 그렸다.

■ **에티오피아 선교 이야기를 들려준다면**
우리병원에서는 참전용사는 전액 무료, 부

인은 50% 감면하여 모든 진료 및 치료를 해 주고 의과대학에서는 참전용사의 손자들에게 특혜를 주어 입학의 특전을 베풀고 장학금을 주어서 교육을 시켰다. 2018년, 내가 그곳을 떠나기 전 제 1회 의대 졸업식에 참석하여 의사가 되는 광경을 직접 목격하기도 했다. 당시 참전 용사분들이 병원에 오게 되면 꼭 내 방을 찾아와 커피를 마시고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어 작품을 준비했다.

한국전에서 돌아온 집이 없는 군인들에게 셀라시에 황제가 황실명 중 일부를 하사하여 참전용사들이 정착하게 하였지만 많은 분들이 이미 작고하였고 또는 이사를 가서 실제로 그곳에 거주하는 분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촌(Korean Village)"라고 불리고 있고 KOICA 등 기관에서 학교를 지어주었고 젊은 봉사자들이 와서 음악, 미술, 태권도 선생님들이 사역을 하였다.

에티오피아에는 80개 종족이 흩어져 사는 데 각각 자기네 말을 사용한다. 한국에서 온 김명환 선교사님이 멀리 떨어진 마장 족속이 사는 시골에 가서 20년을 그 부족 말을 배우고 그 부족의 말로 성경을 번역하여 인쇄된 성경을 봉헌하는 날 초대되어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 10 시간 이상 버스로 찾아가 모든 부락 마을 주민들이 깨끗한 옷을 입고 참석하여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그 지방 기타같은 악기를 연주하면서 야외 집회 장소에 모여드는 광경을 스케치하고 작품을 남기기도 했다. 일생 잊어 바릴 수없는 감격의 장면이다.

에티오피아는 농경을 주로 하는데 사람이 사는 뜨쿨이라는 초가집은 둥그런 모양에 높은 지붕이 가운데로 뾰족하게 가운데 벽을 두고 사람과 소, 양, 염소등의 짐승이 반대편에 한지붕 아래에서 산다. 우리들이 이동진료를 나가서 2-3일을 지내면서 수도물과 전기는 물론 화장실이 없는 형편에 어렵지만 견디고 돌아 오는데, 그곳에 사는 주민

가난한 시절 아버지의 반대로 미대 대신 의대 선택
의대 공부 중에도 미술부 활동하며 전시회도 열어
은퇴 후 5년간 에티오피아 의료 및 교육 선교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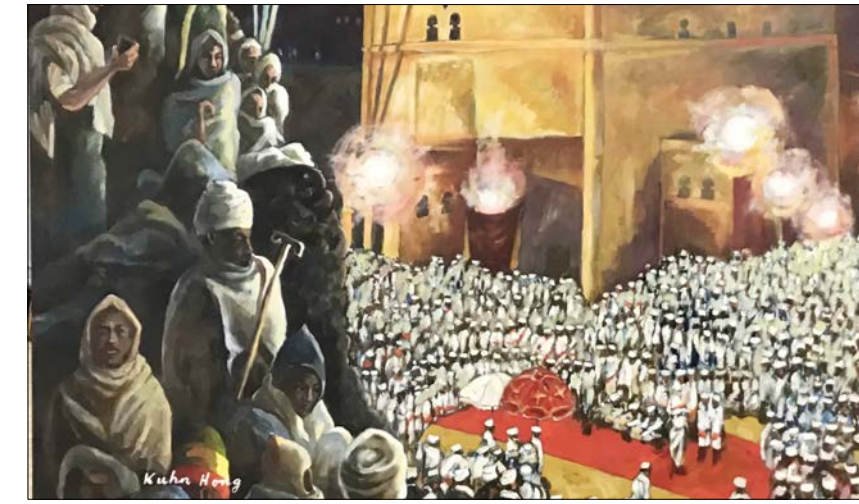
케냐 마사이족의 움막집에서 중환자를 왕진 진찰한후 어린이들과 함께



명성의과대학 의대생들을 영상의학과에서 교육<유화 21 x 25 inch>



마장족의 말로 번역된 성경 봉헌식<유화 31 x 38 inch>



랄리벨라 마리아 교회에서 성탄절 이브 예배<유화 35 x 44 inch>



세족식 심장병 환자 바유쉬< 유화 23 x 28 inch>

들은 의료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여러가지 풍토병과 전염병, 피부질환 그리고 안질환이 가난한 삶의 영향으로 인한 것이다.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와는 달리 최소한의 문명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삶을 목격하면서 가슴이 아팠다.

■ **명성병원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영상의학과 전문의사로서의 일을 하면서, 명성의과대학 의대생들이 실습을 나와서 교육도 하고 강의로 하였으며, 에티오피아에서 처음으로 Interventional Radiology (중재적 시술)을 도입하여 한국에서 여러 대학의 교수님들을 초청하여 5명의 에티오피아 젊은 영상의학과 의사들을 2년제 프로그램을 시작하여 2018년 8월에 5명 졸업을 시작했다. 앞으로 본인들이 다음 세대들을 가르키도록 토대를 마련하고 돌아 올 수 있게 된 것이 흐뭇한 열매다. 그리고 매일 8시에 병원에서 일을 시작하기 전 20분전에 소예배를 모여서 현지인 직원들을 위하여 설교 말씀을 전하고, 주일에는 입원환자와 방문한 가족들을 위해 병원 로비에서 예배를 드리고, 영어로 설교하고 현지인 사역자가 통역을 하고, 예배가 끝나면 원하는 환자들에게 안수하고 기도를 해주는 기회가 있었다. 매년 부활절이 되면 목요일 아침 직원 예배때 처음에는 남자 직원, 그다음에는 여자 엑스레이과 기사, 그리고 병원 화장실 청소하는 여자, 마지막에는 심장병을 앓고 있는 16살 짜리 바유쉬 라는 여자 환자를 세족을 하여 주었다. 발을 씻겨주는 나는 물론이고 모두 같이 웃었고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중내 심장수술을 받지 못하고 병이 악화되어 제가 떠나기 전에 사망하였다. 그 그림이 영원히 기억에 남을 것이다.

■ **어떤 그림을 주로 그리는지**
추상화를 보고 도전해 본 적도 있고 힘들 때 몇 번 시도하기도 했다. 다만 추상화로 전달

될 수 있는 복합적인 메시지보다는 공통적으로 쉽게 그 느낌을 표현하기 위해 사실적인 그림에 더 애착이 가는 편이다.

■ **시카고 지역에서 여러 작품전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에 있는 에티오피아 인**

틈 날때마다 에티오피아 풍경과 인물 화폭에 담아
지난 4월 시카고에서 에티오피아 주제 작품전 열어
“남을 위한 봉사, 나에게 오는 감사와 은혜 더 커”



장남 Tim의 7명 손자,손녀들과 바하마 크루즈여행에서

들과의 인연도 그로인해 있을 것 같다. 고향에도 많은 한국 지인들과 미국인들이 작품전에 방문해 주었다. 하지만 내가 한번도 만난 적이 없는 많은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와서 친구가 되기도 했다. 나는 "음악과 예술은 국제적인 언어"라고 생각한다. 에티

오피아에 있는 동안 많은 시골 지역을 방문했다. 어떤 마을 사람들은 사진을 찍으면 기분이 상할 것이고 심지어 그들의 영혼이 그 사진의 빛함에 빼앗길까 봐 그것마저 싫어했다. 그러나 그들은 스케치되는 것에는 개의치

않고, 오히려 더 먼저 하겠다고 싸우기도 했다. 시카고 지역에 사는 에티오피아인들은 그들의 유산과 배경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아름답게 그려진 고향의 그림에서 고향의 모습과 사람들을 보는 것을 좋아했다.

■ **젊은 예술가들에 조언을 한마디 해 준다면**
1960년대에 가난한 나라에서 미술을 포기하게 한 그때의 아버지의 말은 옳았던 것 같다. 하지만 지금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에 도전해도 될 것이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당신은 당신이 사랑하는 삶을 찾을 권리가 있다. 한국은 현재 경제 강국인 만큼 좋은 예술가들 또한 경제적으로도 여유가 있다. 하지만 성공의 결과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동안 더 행복해질 것이다. 예술가, 음악가, 작가, 배우, 배우가 되겠다는 생각이 반대하는 누군가에게 낙담하고 포기하지 않길 바란다.

■ **서울대 동문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아직 은퇴를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은퇴후에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해보시고 만일 남을 위해서 봉사를 해보고 싶으시다면 미리 그런 기관이나 프로그램에 참가를 해보시기를 권한다. 은퇴를 하고 나면 늦을 수가 있다. 건강과 여러가지 여건이 허락한다면 남을 위해 봉사를 하면 나에게 오는 감사와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직접 체험하여 느껴 보길 바란다.



민일기 (약대 69)

/ 삶과 생각 /

아홉수 고개를 넘어간다

인생을 살다보면 여러가지 고비가 있고 골짜기와 언덕과 고개를 반복해서 넘게 된다.

대학시절 읽었던 러시아 문호 도스토예프스키의 책 한구절이 생각이 난다. 그가 황제 암살모의에 가담한 것이 발각되어 사형선고를 받고 형틀에 묶여서 총살당하려 할때였다. 이제 그에게 이제 남은 생애 시간은 단지 10여분, 그리하여 3분은 지나간 생을 돌아보는데 사용하고, 나머지 3분은 자기가 사랑하던 가족과 친지들을 생각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 4분은 마지막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주위 자연을 살펴보기로 했다.

그런데 주변을 바라보자 이 아름다운 자연과 세상을 두고 30도 안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다고 생각하니 그동안 한시간, 한시간을 무의미하게 보냈고 허비했던 것이 너무 후회스러워 내가 다시한번 살 수 있다면 하는 생각에 미치게 되자 정말 아쉬워 미칠것만 같아 차리라 빨리 총알이 자신의 생을 끝내 주었으면 하였다.

그런 순간에 황제의 특사로 사형에서 감형되어 10여년 러시아 수형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된다. 그러는동안 그는 대문호로서의 영혼의 깊이를 더해가던 것은 틀림 없지만 나머지 생을 하루하루 소중히 보냈는지는 모르겠다. 그가 문호로 유명해진 후에도 그의 도박증은 유명하여 젊은 아내와 결혼한 신희여행에서 아내를 방에 두고 도박을 하여 모든 여비를 잃었다는 일화는 널리 알려져 있다.

나도 한국전쟁 직전에 태어났으니 어머니 등에 얹혀 피란다니며 얼마나 죽을 고비를 넘겼겠는가? 내가 기억하기로 처음 죽을 고비를 넘긴 것은 대학 2학년때 농촌봉사 활동에 참여하여 경상남도 양산군 원동이라곳으로 봉사를 간적이 있었다. 그곳은 물이 참 맑고 산이 좋은 그런 아름다운 시골 마을이었는데 오전 봉사가 끝나고 오후에 날이 더워서 같이 간 동료들과 미역을 감으러 갔다.

그때 나는 수영을 할줄 몰라 부산출신인 Y라는 친구가 내게 수영을 가르쳐 준다고 개울가에서 몇번 시범을 보였다. 나도 몇번 배운 후 혼자 연습을 한다고 하다가 일어서니까 조금 깊은 곳이었는지 '앗 불쌍' 발이 땅에 닿지 않는게 아닌가? 나는 허우적거리면서 물을 거꾸 마시고 이제 이렇게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몇 초 같은 짧은 순간이지만 내 인생이 재빨리 필름이 돌아가듯이 돌아가고 내가 이렇게 죽으면 슬퍼하실 어머니 모습이 보이

“

이제 50년, 내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하루하루

얼마나 의미있게 보냈는지는 저생애 가서

셈을 해보아야 할것 같다. 복잡한 생각가운데

음력 생일도 지나고 드디어 양력생일도

모두 무사히 지나고 코비드 백신도 다 맞았으니

아홉수 고개를 넘어 70세에 안착했다고나 할까?

”

게 죽으면 슬퍼하실 어머니 모습이 보이 기 시작했다. 그러나 죽음이 두렵다는 생각보다는 환한 빛이 보이고 그 빛을 따라 평안한 안식에 들어가는 느낌이였다. 그 순간에 내가 허우적거리는 것을 본 Y가 나를 건지러 왔다. 내는 갑자기 생애에 착이 생겼는지 그를 있는힘을 다해 붙잡기 시작했다. 이게 아마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말이 여기서 나온것일까. 그친구는 내가 필사적으로 잡고 늘어지니까 당황하였지만 다행히 그곳이 깊은곳이 아니어서 무사히 나오게 되었다.

몇년전 한국에 갔을때 Y에게 그일을 이야기 했고 내가 내 생명의 은인이라고 감사 를 했더니 그 친구는 그일을 까맣게 잊고

있었고 나도 아마 평소에 제 2의 인생을 살게 된 것을 잊고 그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 왔겠지.

두번째 죽을 고비는 20대때 결핵으로 사경을 헤멘적이 있었다. 짙고 굵게 산다고 치료를 안하고 질풍노도와 같이 이곳저곳 기웃대고 겁이 없이 나대다가 어느날 갑자기 심하게 각혈을 하고 드러눕게 되었다. 죽음을 막상 코앞에 마주대하니 젊은

이 아홉수의 전통이 우리집안에서 생긴것은 우리 아버님이 59세라는 비교적 젊은 나이에 암으로 타계하시면서 시작되었다. 그러더니 10여년전에 갑자기 내 바로 아래 아우가 예상치 못하게 49세에 심장마비로 타계하면서 나에게는 구체적으로 다가 왔다.

내가 59세가 되던해에 아내가 갑자기 산행 사고를 당하여 생사를 넘나들다 보니 정신없이 지나갔지만 작년 69세를 맞을때는 Covid Pandemic 까지 겹쳐 은근히 불안하기까지 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교회에서 장로까지 한사람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가기를 두려워하더니 나 자신이 참으로 가깝기도 하였다.

이제 죽음을 준비할 나이도 된 것 같은데 죽음을 준비하라는게 어떻게 하는가 구체적으로 막연하다. 많지도 않은 재산을 정리해 두기 위해 Estate planning program을 기웃거리 보기도 하고 Trust를 셋업해 놓기도 했지만 거거야 내가 죽은후 살아 남은자들의 몫이고 나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하는가? 영적으로는 내가 평소 기독교를 믿고 신앙생활을 나름대로 했으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되었는가 할때 아직은 아니다. 그렇게 버르던 Spain의 San Diego 순례길도 아직 끝내지 못했지만 그저 믿는것은 다만 주님의 구원의 은총 뿐이다.

여하튼 그렇게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이제 50년, 내인생이 그동안 얼마나 하루하루 얼마나 의미있게 보냈는지는 저생애 가서 셈을 해보아야 할것 같다. 복잡한 생각가운데 음력 생일도 지나고 드디어 양력생일도 모두 무사히 지나고 코비드 백신도 다 맞았으니 아홉수 고개를 넘어 70세에 안착했다고나 할까?

한살 더 먹는것이 이렇게 안도의 한숨을 짓게하는 것도 웃기는 일이지만 이제는 다시 아홉수 고개를 넘으려면 한 10년은 여유가 있으니까 또다시 그 나타낸 일상으로 돌아가려나?

/ 전문인 칼럼 /

골다공증약과 치과 치료



이범모(치대 74)

전세계적으로 인건수명이 급격히 늘어남 시기는 페니실린 발견, 칫솔 사용의 보편화로 구강 내 감염이 줄었을 때와 임플란트 시술이 본격화되면서 나타났다고 한다. 예전에는 임플란트가 보편화되지 않아서 치아가 많이 상실되면 틀니밖에 할 수 없었다. 자연치보다 50%미만의 기능밖에 할 수 없는 틀니는 대충 씹어서 삼켜야 하므로 소화기 장에는 물론 영양분 흡수 저하로 인한 각종 만성 질환에 취약하게 된다.

나이가 들어 자식들 다 키우고 나면 맛있는 음식도 먹으면서 노후를 즐기고 싶은데, 이런 음식들을 음미하지 못하고 대충 씹어서 넘긴다면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는가? 치아 상실로 먹는 즐거움이 줄고 각종 병에 시달리면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 우울증도 생길 수 있고 자신감도 떨어지면서 사회 생활에도 지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요즘에는 틀니치료 보다는 가능하면 임플란트 시술로 치아를 다시 회복해서 (임플란트는 자기 치아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할 수 있음) 먹는 즐거움을 만끽하면서 노년을 건강하고 활기차게 지내시는 분들이 늘어

나고 있다. 이런 임플란트 시술이 치과에 보급된지 30여년이 넘었고 계속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해 요즘은 아주 흔한 시술이 되었다. 하지만 2000대 초반부터 골다공증약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턱뼈 과사 사례가 보고되기 시작했다. 최근 USC, UCLA 치과 병원과 같은 곳에는 Special Clinic이 생겨 이런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기도 하다. 발치나 임플란트 치료 후 생길 수 있는 턱뼈 과사는 골다공증 약을 먹는 환자들에서 일부 발생하는데 (0.04%), 이것이 생기면 턱뼈에 심한 염증이나 손상이 일어나 정상적인 턱뼈 재건도 아주 힘들고 임플란트 식립도 어려워지며 후유증으로 많은 고통을 할 수 있다. 이런 골다공증 환자는 여자가 남자보다 훨씬 많으며(남자 7%, 여자 93%), 폐경기 이후의 여성 40% 이상에서 골다공증이 발생하고 있다.

골다공증 약제는 80% 이상이 비스포스포네이트 (Bisphosphonate) 계열이며 파골세포의 분화작용을 억제해 골 밀도 하락을 막고 뼈를 단단하게 유지시킨다. 이런 약제들은 척추 및 대퇴골 골밀도를 5-10% 증가시

키고 골절을 40-50%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약제들은 경구용과 주사용이 있다. 경구용 골다공증 약은 매일 복용해야 하지만, 주사제는 3개월, 6개월 혹은 1년마다 투여 받으며 경구용보다 약효가 매우 강하다. 환자들은 경구용 골다공증약을 매일 복용하므로 보통 본인이 골다공증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주사용 골다공증약은 몇 달에 한번씩 맞다 보니 본인이 골다공증 주사를 맞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실을 모르는 채 발치나 임플란트 시술을 받게 된 환자 중에 턱뼈 과사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 이후에 생기기 쉬운 골다공증이 심해지면 주치의와 상의해서 뼈 골절예방 차원에서 골다공증약을 먹어야 하지만, 골다공증이 심하지 않는 경우에는 칼슘제, 비타민 D, 골밀도 높이는 운동, 근력운동, 야회에서 햇볕 쬐면서 30분이상 걷기, 음식 조절 등으로 얼마든지 골다공증약의 복용을 늦출 수 있다. 비스포스포네이트 계통의 골다공증 약을

4년이상 먹거나 정맥주사 중이면 치과 치료 시 뼈괴사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3-4개월 약을 중단하거나 여성 호르몬제 또는 SERM(Selective Estrogen Receptor Modulator)같은 골다공증 약물로 대체할 수도 있다. 물론 주치의와 상의해야 하며 3-4개월 약물을 중단했다고 해서 뼈괴사가 안 일어난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도 가능성이 많이 줄어든다. 치과영역에서 뼈괴사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는 골다공증약 뿐만 아니라 종양치료 목적의 혈관형성 억제제, 골흡수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제제를 장기 투여해도 생길 수 있으므로 주치의와 상의하고 외과적인 치료와 치료를 받는다면 이런 부작용을 많이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기 치아를 유지하는 것이 최선의 건강지침이지만 치아 손실이 발생하면 만성질환이나 골다공증으로 치료하 힘들기 전에 미리 치아 말고 빨리 임플란트로 수복을 해서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한다면 노년에, 먹는 즐거움과 함께 99세까지 88개년 인생을 즐길 수 있지 않을까?

/ 제언 /

인종·성차별을 소멸시키자



김병석(의대 53)

계속 반복되고 있는 인종차별, 성차별, 대량학살의 원인이라고 정부인사들, 권위자들, 언론들이 무엇이라고 제시하던지, 이제는 이 단계를 넘어서 어떻게 이것을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예방하느냐가 화급한 문제이다. 신문 언론에서는 주로 이런 행위들이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고, 정부에서는 시민들에 대한 경고와 주로 총기 통제를 강화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물론 이것도 중요하고 강화해야 한다. 아무도 이 사건들의 근본원인이 무엇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발언하는 사람이 없다. 이 사건들의 근본원인이 공통적이라는 것을 말하는 사람도 없다.

근본원인은 성격장애이다.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요소는 대인관계이며 이 대인관계에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따라서 각개인의 성격이다. 이런 끔찍한 사건들과 매일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슷하고 작은 사건들은 대부분 신경성 성격장애 특히 자아도취성 성격장애(나르시시즘, narcissism)의 소유자들에 의해서 행해지고 있다. 그런데 가중되는 문제는 성격장애라는 것이 정상적인 범위에 포함되고 또 성격은 고치거나 변경될 수 없다고 생각하여 방치해 두는데 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전형적인 나르시시즘 성격장애자라고 경고한 미국의 직전 대통령의 4년간 행적을 통해서 직접 체험 해 알 드시 이것은 대단

히 심각한 문제이다. 지금 우리가 율분하면서 겪고 있는 동양인에 대한 차별행동도 백인우월주의자들의 행태도 바로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중에 하나다.

지금 우리들은 노이로제와 노이로제적 성격장애라는 문제를 등한시 한 대가를 크게 치르고 있다. 이 사회는 노이로제적 증상들의 폭발적인 증가를 목격하고 있다. 즉 공황장애를 비롯한 여러 불안증상들, 우울증, 자살과 타살, 약물남용, 그리고 노이로제적 성격장애에 특히 나르시시즘 등의 증가이다. 나르시시즘 성격의 소유자는 지나친 자신감, 자기자랑, 자결과 권리 주장, 거침없는 말대꾸, 자기중심적 이고, 냉담하고 냉정하고, 인종 및 성 차별적이고, 중첩을 수 없고, 등등의 특징을 보인다. 이런 증상들과 성격의 소유자들의 숫자가 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가? 물론이다. 요즘 젊은이들이 버릇 없고 다루기 힘든다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것은 컴퓨터나 핸드폰과 같이 사

람들로 하여금 디지털 기기의 표면을 하루 종일 들여다보게 만들어 놓은 기술이 공헌하고 있다.

이렇게 우려되는 경향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정신과 의사, 정신분석가, 정신치료자들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성격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는 정신치료만이 적절한 치료방법이다. 그러나 정신건강 치료법은 잘못된 전문의 지도자들과 자본주의적 폐단에 의해서 왜곡되어 오히려 이런 현상들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 이런 문제들의 근본적 해결 방법은 두가지이다. 임시적인 미봉책이 그 하나요, 근본적인 원인 즉 성격장애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하다는 것을 믿고 근치해서 영원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들의 반복을 예방하는 것이 두번째이다. 이제 우리는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끔찍한가를 반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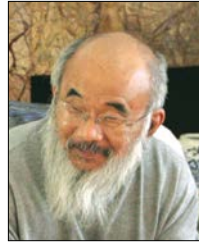
중들에게 경중을 올리고, 이민법을 개정하고, 총기규제를 강화 시키는 것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 왜곡된 정신과 치료를 진보 개선하는 이상으로 가야한다. 우리는 이 사회에 바이러스처럼 퍼지면서 사람들을 비참하게 만들고 있는 성격장애라는 정신문제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일반 대중과 정신건강 전문가들로 하여금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후퇴하게 하는 극진한 노력에 전념하도록 해줘야 되겠다. 왜냐하면 성격장애자들은 절대로 자신의 성격문제를 고쳐달라고 오는 일이 없고, 그것이 또한 이 병의 특징 중의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 모두가 시작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은 모든 사람이 매일 5분 이상 명상시간을 갖는 것이며 간단하고 쉬우나 그 효과는 대단히 크다는 것을 명심 해야 되겠다. 따라서 이런 노력은 이 사람들을 직접 치료 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이 힘을 합쳐서 대중들에게 간접적으로 실천 해야 하기 때문에 인간 몇대에 걸쳐 꾸준히 진행해야 하는 장기적인 과정이다. 그러나 인종차별, 대량학살 등의 끈질긴 사회적 문제들을 감소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는 근시안적이 아닌 인내심 있는 비이존(vision, 미래를 내다볼 수 있는 혜안)을 발휘해서 노력해야 되겠다.

<최근에 저자가 영어로 출판한 책 Cherish the Invisible Mind 에 이러한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내가 내는 구독료, 든든히 세워지는 동창회!

SNU Alumni Association 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장소현(미대 65)

화가 현혜명의 눈길은 늘 자연을 향해 열려 있고, 그림은 신비로운 자연을 찬미하는 노래로 가득하다. 그 노래는 늘 해맑고 경쾌하고 아름답다. 그의 그림은 자연을 창조한 하늘에 대한 겸허한 찬양이고 신앙간증이고, 기도의 한 방법이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그림은 정신적, 신앙적 '마음 풍경화'인 것이다. 작가 현혜명은 자신의 그림을 '삶의 간증'이라고 말한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것이 내 그림의 밑바탕에 깔려있고, 나의 손과 뛰는 심장과 나만이 보는 눈으로 그 세계를 그리고 싶다. 자연의 신비와 질서, 침묵, 그것을 기억하고 작품을 통하여 인간인 나 사이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고 싶다" (92년 작가노트 중에서)

"나의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세계가 조금이나마 드러날 수 있다면 정말 좋겠어요. 감히 그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어요. 물론 어렵없는 꿈이겠지만..."

자연스럽고 끊임없는 변화, 현혜명의 그림은 그동안 끊임없이 건강한 변화를 거듭해왔다. 음악으로 말하자면, 하나의 주제 안에서 다채로운 변주를 거듭해온 것이다.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고, 본격적으로 작품을 발표하기 시작한 50여년 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자연을 그리고 있지만, 화면은 꾸준히 변해왔다. 그 변화는 아단스적이고 획기적인 것이 아니라, 마치 계절이 변하고 꽃이 피고 과일이 익어가듯 착실하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곤 한다. 그 자연스러운은 본질에서 우러나는 것이다.

한 화가의 작품세계가 변화하는 과정이 반드시 논리적인 필요는 없다. 그 변화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편이 바람직할 것이다. 지금까지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초창기의 명랑하고 목가적인 전원풍경에서 섬, 숲, 나무로 이어지는 여정을 거쳐 지금의 '선조의 정원'과 '로망스' 시리즈에 이르고 있다.

자세히 보면, 연륜이 깊어질수록 작가의 시선이 점차 좁혀져 왔다는 것을 눈치 챌 수 있다. 이러한 눈높이의 변화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이어서, 어쩌면 작가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변화일 지도 모른다. 이같은 눈길의 변화는, 나태주 시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더 자세히 오래 보고' 싶은 마음에서 우러난 것이라고 여겨진다. 그러니까, '창조의 신비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자세히 오래도록 정성껏 관찰하고, 공감하고 감동하고 사랑하려는 노력인 것이다. 그림의 연륜이 깊어질수록 신의 섭리에 가까이 다가서려는 간절함도 짙어지는 것일까?' 따뜻하고 편안한 그림 현혜명의 그림은 무엇보다도 소박하고 섬세하고 따뜻하다. 편안하고 즐겁다. 무척이나 밝고 명랑하다. 그리고 겸손하다. 깊은 철학이나 사상이나 갈등, 현실 비판 따위의 메시지를 강요하려하지 않고 근본적으로 단정하다. 유행하는 미술 조류에 흔들리지도 않는다. 그래서 자유롭게 거침이 없다. 이 자유로움이야말로 그림의 '그림다운' 으뜸가는 덕목일 것이다. 물론 이것은 단점일 수도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그렇게 아름답고 즐겁기만 한 것도 아니고, 작가란 그 아름답지도 사랑해야 하는 존재이므로...

하지만 거친 세상살이에 찢긴 사람들의 마음을 포근하게 어루만져주는 기능 또한 그림의 중요한 기능인 것은 분명하다. 특히 요즘처럼 험상궂은 세상에서는 그런 따스한 손길



선조의 정원 III(2020, 48x48, Mixed Media)

이 한층 그림워진다. 그런 점에서 현혜명의 그림들은 빛나는 값어치를 지닌다. 그의 그림들은 그림 본래의 구실을 소중하게 여긴다. 세상 파도에 휩쓸리지 않고 본래의 가치를 지켜간다는 것은 힘들고 외롭지만, 그만큼 귀한 일이다.

"아름다운 세계를 추구하면서 설명이 필요없는 단순한 삶의 기쁨을 전하고 싶다. ...(중략)... 바깥 세계와 안의 세계가 만나는 곳, 나와 자연의 만남, 나와 만남, 마음의 창고를 열고 우리는 그 안에서 휴식처를 마련했으면 싶다" (현혜명의 작가노트에서)

현혜명 작품에 대한 평가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 이성과 감성의 균형, 그림 바닥에 깔린 음악성, 생명 살리는 바람직한 여성다움, 철저한 그림다움, 고집스러운 자기세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게 소중한 것은 '그림다움'에 대한 확고한 신념일 것이다. 작품의 완성도를 위해 어느 한 구석도 소홀하게 넘기지 않는 철저한 자세를 잃지 않는다. '장인정신'이라고 불려도 좋을 그런 태도는 연륜이 쌓일수록 더 철저해지는 것 같다.

그림다운 그림에 대한 열망 현혜명의 그림은 매우 '그림답다'. 조형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그렇다. 그래서 화가들이 흔히 쓰는 '작품'이라는 단어보다 '그림'이라는 낱말이 훨씬 더 잘 어울린다. 그의 그림을 그림답게 하는 중심적 조형 요소는 평면성과 상징성, 장식성 등이다. 여기에 시적 분위기와 '음악적 마음풍경'이 더해지면서 작품세계는 한층 깊고 자유로워진다. 자연의 본질에 바짝 다가섬으로 해서 시적이며 음악적인 마음밭을 일구게 되고, 매우 쉽고 편안하게 보는 이의 가슴으로 스며드는 힘을 획득했다.

"얼핏 보아 명백한 바깥 세계의 풍경이로되, 그 전체의 인상과 느낌은 볼수록 그 자신의 정감이 흠뻑 배인 마음의 풍경이며, 나아가 음악적 정감이 침투된 음악적 풍경이다." (미술평론가 김복영 교수의 글 중에서)

'그림'이라는 낱말의 말뿌리는 '그리움'이다. 그림을 '그리다'

/ 미술칼럼 /

자연의 신비를 찬양하는 마음풍경

화가 현혜명(미대 61)의 최근 작품들



로망스 1902(2019, 40x50, Mixed Media)

와 닮은 '그리다'의 '그리다'는 같은 뜻이다. 이 때 그리움의 대상은 물론 우리 삶을 섭리로 다스리는 신이요, 자연이다. 때로는 꿈이나 바람일 수도 있다. 원숙기로 접어들어 요즘 작품에서는 그 그리움이 한결 근원적이고 질게 드러난다. 시와 음악에 더하여 정겨운 이야기가 중요한 몫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마치 어머니의 자장가처럼...

그의 그림에 흔히 등장하는 자연, 어린 시절 마음껏 뛰놀며 꿈을 키우던 평화로운 들판, 되돌아가고픈 꽃동산, 새들이 자유롭게 날고 말이 한가롭게 풀을 뜯는 시의 세계, 아름다운 동심의 나라... 그런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작가는 어린이를 닮은 순수한 마음의 울림에 충실한 '마음풍경'의 세계를 자유롭게 펼친다. 구김살 없는 이야기의 나라로 들어 가려 애쓴다. 비어 있는 마음의 유희 현혜명의 그림은 머리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슴으로 스며드는 아늑하면서도 강한 힘을 지니고 있다. 그런 덕목은 그의 제작태도에서 비롯되는 것 같다. '예술이란 즐겁게 하는 형식을 만들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라고 한 허버트 리드의 정의가 딱 들어맞는 태도다. 작가 현혜명은 이것을 '비어 있는 마음의 유희'라고 표현한다.

"유희하는 기본으로 텅빈 마음 속에서 일어나는 자발성으로부터 시작한다. 선과 색채들, 형태와 패턴, 그리고 텍스처들을 가지고 유희한다. 이러노라면 형태가 찾아지고 발전되고 변모되며 또 다른 형태를 만들어내기까지 한다. 형태들이 이처럼 발전됨에 따라 이것들에 내가 반응하듯, 이것들을 느끼고 분석하고 검토하며 생각하다가 마침내는 생각을 떠나게 된다. 여기서 유희가 작품으로 전환되는 것이다." (현혜명의 작가 노트에서) <



박재은 (미대 63)

/ 삶과 예술 /

미술 산책- 낙서(graffiti)

뉴욕의 명물은 카네기 홀, 브로드웨이, 뮤지엄 등, 넘쳐흐르는 문화와 함께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갈겨진 낙서들이다. 아파트 건물 벽, 상점들의 철문, 심지어는 보도에 놓여진 쓰레기통, 수도관, 가로등 위에 갈겨진 낙서들, 한 사람이 낙서를 갈겨 놓은 위에 또 다른 사람들이 낙서를 계속 해서 갈겨 툰이 쌓여 완벽한 그럴듯한 한 폭의 걸작품이 되어 있기도 한다.

지금은 좀 뜸해 졌지만, 1981년도에 보았던 뉴욕은 온 도시가 낙서로 뒤덮여 있었다. 커다란 낙서들로 뒤덮여 꽃마차처럼 보이는 전철, 전철 내부 어디에도 갈겨진 낙서들,상식적으로는 질서를 교란하는 도발 행위라고 간주되었지만 화가인 나는 이 갈겨진 낙서들에서 시원한 해방감과 함께 솟구치는 생명력을 만끽했다. 마치 숲이 성인기 만큼 자라는 비옥한 이나라의 토양에 어디에도 무성한 잡풀처럼 American dream의 무지개를 불들려 이 도시로 밀려드는 이민자들의 강인한 생존력처럼 아름다워 보였다.

모든 창작은 의식의 표현이다. 원시인들은 눈, 비가 내리는 날이면 동굴에 머물며 그들의 의식에 새겨진 그들이 보고 경험했던 기억들과 그들이 바라는 소망들을 동굴 벽에 그려 냈다. 어린이가 말을 배우고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하면 온통 집안 벽에 낙서를 해대고 학령기가 되면 자기가 보고, 느끼고, 생각한 바를 만화로 그려 표현한다. 공부 안하고, 만화를 그리다가 어른들이 아단했던 만화그리기야말로 어린이의 상상력, 창작력,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표현할 수 있는 표현력을 기

도대체 이처럼 낙서를 갈겨낼 수 있는 사회상은 어디서 오는걸까? 1950년대, Pollock의 뿌려갈겨 만든 dripping painting, Dekooning의 무자비하게 왜곡(distortion)하여 만든 여인상 등이 그 시대를 풍미했던 시대정신이 계속 이어지

고 있던 현상이다. 뉴욕에서 시작되었던 낙서를 갈기는 현상이 세계각처에 퍼져 지금은 세계 어느 곳에서나 갈겨진 낙서들을 볼 수 있다. 1, 2차 대전의 극한 상황에서 몹시도 억눌려 살던 인간정신은 마치 원자폭탄처럼 대폭발을 해서 인류 정신 사상 가장 풍요롭고 성숙한 정신문화를 만발하게 꽃피웠다. 실존철학과 생철학을 알게 되었고, 문학에서도 심리묘사, 의식의 흐름, 반항의식을 묘사하는 문학, 재즈 음악, 미술에서도 내적 의식을 표현하는 표현주의, 초현실주의 등의 화풍이 나왔다. 1945년에 끝난 1, 2차 대전은 지금 현재와 그리 멀지않은 아주 가까운 지나간 시대에서 우린 아직도 그시대정신의 잔여속에 살고 있다.

일본에서는 소리지르키라는 심리 치료법이 있어 의식에 맺힌 불만, 분노 등을 소리를 질러 뿜어내어 치료하는 치료법이 있다고 한다. 히틀러때, Jewish Camp에 갇힌 사람들이 죽음의 공포를 못 이기고 힘을 몰아 자살들을 하는데 한 시인은 시를 쓰며 죽음의 공포를 이겨내고 무사히, 뉴욕에 도착해 시를 쓰며 잘 살고 있다는

중어인 숙제이자, 특권이기도 할 것이다. 징검다리라는 철재나 시멘트로 만들어진 투박하고 일방적인 다리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물과 돌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다리이다. 그 징검다리가 문화와 정신을 이어준다.

현혜명은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과 장벽들을 고집스러운 독심으로 넘어선다. 그의 그림에는 한국과 서양을 이어주는 요소들이 든든하게 자리잡고 있다. 큰 미덕이다. 현혜명의 작품세계에 대해 평론가 엘리노어 허트리는 "상이한 두 문화의 풍부한 혼합"이라는 글에 다음과 같이 썼다.

"...여러 가지 역할과 다양한 문화적 경험은 그녀의 작품에 반영돼 있다. ...(중략)... 현혜명의 작품은 문화들이 서로 만났을 때에 가능한, 풍부한 혼합의 증거다. 그녀는 우리를 자기 작품의 다채로운 풍경으로 초대함으로써 매우 다른 두 세계에 다리를 놓는다."

한국과 미국의 징검다리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국계 여류 화가 현혜명의 중요한 존재 이유는 한국과 미국을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이다. 두 문화를 이어주는 징검다리가 되는 일, 그것이 바로 '재미 한인작가들에게

글을 writer라는 잡지에서 감명깊게 읽은 바있다. 나는 매일 일기를 쓰며 나의 지고 지순한 진아를 지키며 사는 행복을 누리며 산다.

헤밍웨이는 책이야말로 이세상에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친구라고 했다(Nothing is as royal than royal as a book) 이라고 했다. 일기장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부모, 형제, 친구, 남편, 그누구보다도 나의 소망, 꿈, 좌절, 아픔, 나의 모든 것을 호소할 수 있는 나의 가장 가까운 동반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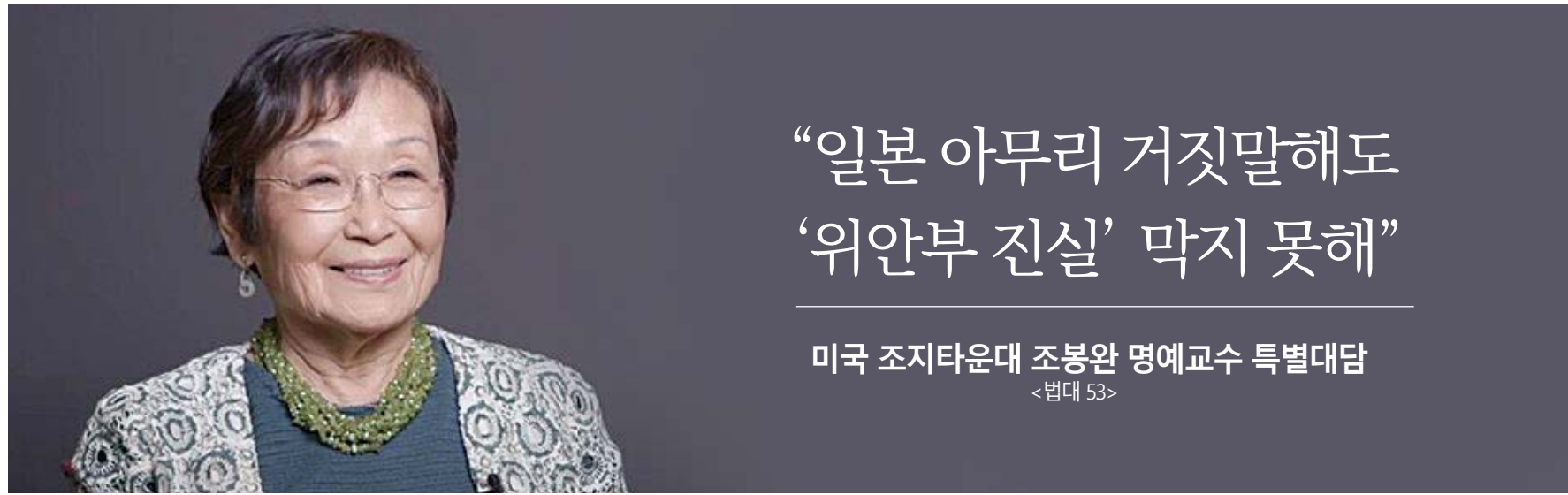
2년째 접어들고 있는 긴긴 침거의 기간, 어쩌면 완벽한 은둔의 호사속에 하루종일 침대에 뒹굴며 창 밖을 스치고있는 계절들의 도착, 떠남을 역력히 느끼며 화려하고 허황한 백일몽에 도취해 살고 있는 호사를 만끽하고있다.

"천국에는 아마도 시가없을거다, 그곳은 모든것이 완벽하게 갖춰있기에 시가 필요 없을거다" 라고 어느시인이 썼듯 우린 쫓겨나와 버린 우리들의 본향, 천국에 대한 그리움으로, 시와, 음악과, 그림을 사랑한다.

나의 부역 창으로 밀려드는, 꽃피는 봄 사월 화사한 오후 햇살 속에 빛나는 나의 꿈.

화가 현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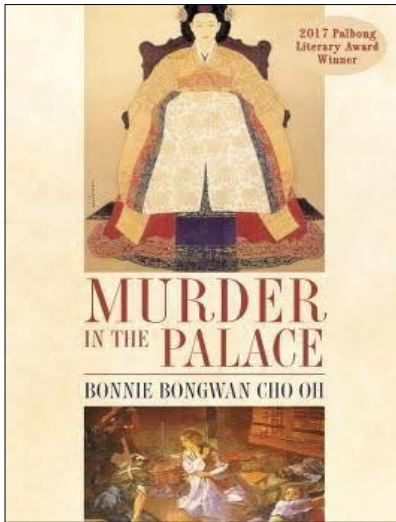
서울대 미대 회화과와 펜실베이니아 아카데미 오브 파인 아트스를 졸업하고 하트포드대학에서 미술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50년이 넘는 작가생활 동안 40여 차례의 개인전을 가졌고, 수많은 단체전 참여와 수상경력을 갖고 있다. 가장 최근의 개인전은 뉴욕 맨해튼의 One Art Space에서 지난 5월 1일부터 11일까지 특별 초대전으로 열린 회고전이다. 이 전시회에는 초창기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작품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대표작들이 한 자리에 전시되었고, 도록도 발간되었다.



“일본 아무리 거짓말해도 ‘위안부 진실’ 막지 못해”

미국 조지타운대 조봉완 명예교수 특별대담
<법대 53>

“이 분(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이 너무 틀린 말을 했어요. 일본군 ‘위안부’들이 계약서를 쓰고 돈을 받았더니 말이 안 돼요. 열둘, 열셋 소녀들이 뭘 알고 계약서를 썼겠어요. 이 분이 증거를 내세운 것은 하나도 없고 추정으로 논문을 썼어요. 연구를 너무 안 했어요.”



조 교수가 펴낸 <궁내의 살인> 표지.



조봉완 교수가 두 딸과 샌프란시스코 위안부 기념비를 찾았다.

그 중 셋이 위안부 관련자였어요. 제가 기획한 학회 영향도 있었을 겁니다.” 2001년에는 위안부 문제와 일본의 공창제도, 일본의 여성차별 제도에 대한 글을 묶어 <2차대전 위안부의 유산들>이란 영문 책도 냈다.

그는 조지타운대학 퇴임 10년 뒤인 2016년에는 ‘조선의 마지막 국모’ 명성황후(1851~95)의 생애를 다룬 영문 소설 <궁내의 살인>을 미국에서 출간하기도 했다. 한국어 번역본은 1년 뒤에 나왔다. “이웃 나라의 국모를 잔인하게 죽인 일제의 만행을 한국인이 아닌 사람들에게도 알리고 싶어 소설로 썼어요.” 그는 이 작품에서 명성황후는 매우 총명하고 국제적 감각도 있어 남편 고종을 도와 나라를 거의 구할 뻔했다고 긍정적으로 그린 반면, 명성황후와 대립한 시아버지 대원군은 권력 쟁취를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은 ‘악한’으로 묘사했다.

“명성황후는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하자 러시아와 미국을 끌어와 일본을 견제하려 했어요. 이 계획이 거의 성공한 단계에서 일본이 계락을 써서 살해한 거죠.” 그는 소설에 여성주의 시각을 담았다고 했다. “전에는 주로 남성 작가들이 책을 쓰면서 명성황후를 안 좋게 그렸어요. 명성황후가 시아버지와 대립하고 다룬 것을 좋지 않게 봤죠. 남성 작가들은 또 일본이 명성황후 살해에 대원군의 허락을 받은 점이나 시해 당일 대원군이 가솔을 앞세워 경복궁에 들어닥친 사실을 잘 드러내지 않았어요. 저는 명성황후를 여성이 아니라 ‘완성된 인간’으로 그렐렸어요. 시부 앞이라도 인간으로서 서슴없이 자기 의견을 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요. 명성황후는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수십 년을 앞서 살았죠.”

열강의 틈에서 어쩔 줄 몰랐던 명성황후 시절과 견줘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어땠냐고 묻자 그는 “현재 한국은 경제나 과학은 물론 대중문화에서도 강국”이라며 그때와 차이가 크게 다르다고 했다. “저처럼은 지정학적 위치여서 한국이 민첩하게 외교를 파악했지만 현재 한국은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중요한 나라입니다.”

<출처=한겨레 신문>

1992년부터 미국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진실을 알리는 데 힘써온 조봉완(법대 53) 미국 조지타운대 명예교수의 말이다. 그는 지난 2월에 일본군 ‘위안부’를 ‘자발적 매춘부’로 규정한 램자이어 교수 논문의 문제점을 짚고 게재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을 직접 작성해 학술지 <국제법경제리뷰> 쪽에 보냈다. 마거릿 스테트 델라웨어 교수 등 동료 연구자 활동가 16명의 지지 서명도 직접 받았다. 지난달에는 위안부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할 것을 한일 정상에 요구하는 미국 인권단체 등의 공개서한에도 이름을 올렸다.

‘램자이어 교수 논문 철회’ 성명 등 주도 “그는 하버드대 이름 믿고 너무 오만” 명성황후 삶 소설 ‘궁내의 살인’ 쓰기도

그는 램자이어 교수 논문의 가장 큰 문제를 이렇게 말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일본에는 ‘가라유키상’이라는 중군 매춘 제도가 있었어요. 농촌이나 천대받던 부락주민 출신의 가난한 여성들을 돈으로 사서 청일전쟁(1894~1895)이나 러일전쟁(1904~1905), 시베리아 원정(1920년도 초)에 참전하는 군인들을 따라 보냈어요. 이 제도에는 금전 거래나 계약이 있었죠. 램자이어 교수는 이 제도가 조선이 식민지가 된 이후에도 일본에서 있었으니 조선에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했어요. 하지만 위안부 제도는 1931년 만주사변 때까지는 존재하지 않았어요. 램자이어 교수가 가라유키상 같은 제도가 조선에 있었는지 확인하지 않은 게 가장 큰 잘못입니다. ‘하버드대’라는 이름 때문에 램자이어 교수 자신이 오만했고 이 때문에 그의 망언이 더 알려지게 된 거죠.”

그는 “일본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위안부 문제가 세계적으로 중요한 학술 주제가 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모두 돌아가시더라도 그분들이 남긴 증언은 대학과 대학원생들의 연구 자료가 될 겁니다.” 그는 “위안부 문제는 여성인권과 지금도 성행하는 인신매매와 바로 연결되어 있어 절대 사라지지 않을 것”

이라고도 했다.

1974년 시카고대학에서 ‘청일전쟁의 정치적 배경을 주제로 박사 학위를 받은 조 교수는 50대 후반이던 92년부터 위안부 문제에 관심을 쏟았다. “경기여중 선배인 이동은 워싱턴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이하 워싱턴 정대협) 초대 회장의 권유로 92년 이 단체 이사로 참여했어요. 그때 처음으로 위안부에 대해 알게 됐어요. 동양사로 박사를 받았지만 그전에는 몰랐어요” 특히 선배가 들려준 위안부에 대한 말이 오랫동안 잊혀지지 않았다.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가 위안부 피해자들과 나이 차가 별로 나지 않아요. 만약 5~6년만 일찍 태어났다면 저도 그런 상황에 처할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을 했죠.”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서울대 법대에 들어간 그는 3학기만 마치고 56년에 미국으로 건너갔다. “전쟁 직후라 대학 수업이 거의 없었어요. 그나마 있는 수업도 남학생 대부분은 번갈아 출석부에 도장만 찍고 깊은 산 절간에 들어 앉아 고시공부를 했죠. 지식을 얻

으려 찾아온 대학이 이 지경이라 유학을 갈 수밖에 없었죠. 혼자 유학길을 알아보고 결정된 뒤 부친에게 말씀드렸더니 선뜻 동의 해주셨어요. 부친이 제 이름을 남자처럼 지은 것도 전형적인 여성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겼다고 했죠.”

그는 미국에서 세 아이를 양육하며 박사 공부를 병행해 만 40살에 박사학위를 땀다. 조지타운대학에 재직하던 1996년에는 일본군 ‘위안부’를 주제로 미국 내 첫 학술회의를 기획해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워싱턴 정대협 쪽과 논의해 학회를 열기로 했는데 조지타운대학이 예수회 재단으로 진보적인 학풍이 아니라 개척이 쉽지 않았어요. 여성학을 가르치는 스무살 아래 백인 동료 교수와 함께 시피 했죠. 다행히 학회가 열리자 350석 강당이 꽉 찼고 그 뒤로 미국 곳곳에서 위안부 관련 회의가 열렸어요. 또 학회 3개월 뒤 미 법무부에서 일본 전범 명단을 발표했는데

원고 모집합니다

-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의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ua.org 로 보내주시시오.



박진국의(대 65)

/ 산행기 /

남가주 산악회 활동보고

가주 State Par(SP) 두 군대를 모두 두번의 예방접종 이후 일주 간격으로 가볍게 산행한 보고입니다.

좋은 날씨 겨울 산행은 축복이었고, Covid-19 4차 Peak는 각자의 '걱정'의 자유에 맡기기로 했다. 2월 29일은 음력정월대보름날로 큰 달을 어디서 볼까 생각하며 Mojave Kern County 남단에서 24마일 북쪽 HWY14가에 있는 물 없는 적벽암 공원으로 향했다. 몸풀기 관광여행으로 예상했던 Hiking이 사막바람속의 5마일이 되었고, 또 준비해온 달밤의 저녁식사가 따뜻한 점심 식사로 바뀌었으며, 예상을 넘는 사진 촬영의 천국이 되어 오후 4시에 일찍 후퇴하였다.

Visitor's Center가 있는 HWY 동쪽의 Whitehouse Cliffs에서는 150fts 정도의 Greek Dorian 기둥 모양의 병풍절벽을 Belay없이 오르리라고 오산, 못오르고 더 낮은 쉬운곳으로 기어올라 Whistler's Ridge Trail에 오르니 이름대로 Panoramic View 가 휘바람 부르고 시원하게 좋았다. Ricardo Trail로 연결되어 2마

일 이상 걸어 Visitor's Center Picnic table에 돌아오니 딱 점심시간. Burner로 끓인 쇠고기 씨레기국에 오곡잡곡밥과 견과를 너무 맛있게 먹고나니 모두가 만족 그러나 준비한 저녁을 점심에 먹었으니 변명하길 '금강산도 식후경'. 이 badland가 1890년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뻥하게도 Goldfever-El Paso Mountain 지역 Rangerstation Helmet이 Ricardo 집안과 Hagen의 소유에서 Hollywood Movie Background에서 주립공원으로 되었으나 아직도 크마일이 되었고, 또 준비해온 달밤의 저녁식사가 따뜻한 점심 식사로 바뀌었으며, 예상을 넘는 사진 촬영의 천국이 되어 오후 4시에 일찍 후퇴하였다.

닌가. 메세지로 들어온 사진들을 보니 세계의 수많은 적벽 중에도 '작은 고추가 맵다'라고 시간은 짧고, 공원은 작았지만 'Best Colorful'이었습니다.

3월6일 여러번 간적 있는 Nicholas(Rancher이름) Flat으로 HWY 10에서 PCH로 24마일 북상, 만족한 traffic을 감사하며 Round Trip 8마일, 2000fts gain으로 Malibu Beach Hollywood Movie Background에서 주립공원으로 되었으나 아직도 크마일이 되었고, 또 준비해온 달밤의 저녁식사가 따뜻한 점심 식사로 바뀌었으며, 예상을 넘는 사진 촬영의 천국이 되어 오후 4시에 일찍 후퇴하였다.

0.7마일 더 내려가서는 Nicholas Flat에 Meadow와 작은 천연 호수가 있어 외가리 오리가각 한마리가 우리를 보고도 모르는척 유유히다. 2000fts 밑으로 바다를 보며 점심을 먹고 신입회원의 신고식도 끝낸 후 북쪽 Loop로 더 올라가서 Santa Monica Mountain에서 제일 높은 Sandstone Peak(3111fts)를 배경으로 사진 찍으며 놓치기 힘든 세계적 건축가가 설계한것으로 추정되는 Malibu의 환상적인 Ranch를 망원경으로 즐기는 것을 잊지 않았다.

산과 바다, 자연과 인간의 성취가 태양과 바람으로 섞여서, Surfer와 Migrating Whale을 보지 못했지만 Mt Rancher와 Malibu의 꿈(or 꿈 같은 Malibu)이 이렇게 깊게 느껴지는 Hiking은 최근 최상의 경험이었다. 돌아올때는 왼쪽 Alternative Willow Creek Trail로 내려와서 기분전환하고 Beach까지 둘러 LA County 경계가 보이는 '꽃까지 보며 Bye Bye.

*Red Rock Canyon은 1982년에 늦게 Leo Carrillo는 1928년 거의 원조로 State Park이 되었다.



<왼쪽부터>김동근(공60) 부부, 조정시(공60), 정동규(공57) 부부, 김민권(시72), 유혜연(음79), 유재각(음72), Mrs.조정시, 남종우(공62), 한정희(음72), 박진국의(대65) 부부





박평일 (세대 69)

/ 박평일의 삶며 생각하며 /

나의 남편은 나무꾼

나의 남편은 나무꾼
부지런하고 마음씨 너그러운 자
심이 세어 지구도 능히 지고 남지만
큰 지체가 없다고 아쉬워하는 자
나의 남편은 나무꾼
선량하고 겸손한 자
누굴 만나드라도 고개를 숙이고
친절이 대하는 자
시상은 살기 좋은 곳
우리 남편은 나무꾼이 제격이지
읍장을 시키려고 한대도
취향이 맞지 않대요.
나무를 팔아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과 옷가지들 사가지고 돌아올 때가
가장 즐겁다는
나는 행복한 나무꾼 아내
-김시라-

이 시는 내가 대학을 갓 졸업하고 광화문에 있는 첫 직장 현대자동차를 근무하고 있던 시절 점심시간에 길 건너 금란다방에 들렀다가 첫눈에 맘에 들어 몇 년간 사귀게 된 한 여성으로부터 15여 년 전에 이메일을 통해서 선물 받았던 시다. 그 당시 그녀는 E 명문여고를 졸업한 후 서울에 있는 S여대 국문과 졸업반이었다. 그녀는 문학을 전공한 여성답게 풍부하고 섬세한 감성의 소유자로서 자신의 감정에 무척 솔직하고 진실했다. 우리는 낙엽지는 어느 가을날 고궁 벤치에서, 녹음이 짙어가는 어느 여름날 광나루 보트 위에서 뜨거운 키스를 교환하기도 했었다.
내 생일날 시집을 나에게 선물한 처음이자 마지막 여성이기도 했다. 나이에 비해 조숙한 나는 중학교 때 이미 같은 또래 여학생과 첫사랑에 빠져 이삼년 간 사경을 헤매었던 경험이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고백에 따르자면, 나는 그녀의 첫사랑이었다. 만약 내 운명에 '천역살이' 까지 않아 미국에 이민 올 팔자가 아니었다라면 나와 그녀의 인연이 어떻게 진전되었을지는 오직 전진전능한 신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그런 그녀로부터 40년이 지난 후, 전혀 뜻밖에 이메일을 통해 이 시와 함께 두 자녀의 어머니로 살아가고 있는 그녀의 사연이 담긴 한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인사동에 있는 천상병 시인 부인 목여사가 운영하고 있는 '귀천' 찻집에 혼자

서 들렀다가 벽에 걸려있는 이 시 액자를 보고, 문득 내 얼굴이 떠올라 보냈다는 것이다. 내 이메일 주소는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내가 회장으로 있었던 동창회 소식을 통해서 알아냈다고 했다. 그 오랜 빗바랜 세월동안 그녀는 나를 가슴 속 깊숙히 담아두고 있었다. 나는 그런 기억같은 사실에 흥분, 몇주동안 가슴이 공공 뛰여 아무것도 손에 잡히질 않았다. 그 후부터 나는 이 시를 내 가슴 깊숙히 묻어두었다가 포근한 인정이 그리울 때 마다 꺼내 혼자서 읽곤 한다. 4년전 한국을 잠시 방문하였을 때 몇 명의 대학동문들과 인사동 한옥 한국식당에서 식사를 마친 후 잔뜩 기대를 걸고 떨리는 가슴으로 식당 근처에 있는 '귀천' 찻집을 찾아갔다. 실망스럽게도 이 시도 벽에 걸려있지 않았고, 목여사도 세상을 떠나고 목여사의 조카 딸이 찻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나는 천상병 시인의 시집 '귀천' 을 한권 가지고 있다. 솔직히 말해서 그의 대표작인 '귀천' 시 외에는 맘에 드는 시가 별로 없었다. 시인들의 운명이라는 것이 그렇다. 시인들은 한편의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평생을 시심을 갈고 닦다가, 운이 좋으면 한편의 시를 남기고 역사속으로 사라진다. 시인은 한편의 위대한 시를 쓰기 위해서 존재하고, 그 한편의 시로 기억되는 것이 시인들의 기구한 팔자다.
'귀천 찻집' 하면 천상병 시인의 시 '귀천'이 아니라, '김시라' 시인의 시 '나에 남편을 나무꾼'이라는 시가 먼저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
젊은시절 사랑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고 해 두자.... 첨겨라고 할까? 숨고르기라고 할까?
나는 지난 한달동안 평소에 기계처럼 해오던 일상의 습관에서 벗어나려고 무척 노력했다. 이 나이에 간절함이 없는 모든 인연은 잠시 스쳐가는 먹구름 같이 무상한 것들일 것이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는 명상과 기도, 그리고 직업상 꼭 필요한 일들을 제외한 모든 일상의 일들을 즉흥적이고 순간적인 가슴의 떨림에 맡기려고 노력했다. 좋아하는 책읽는 습관, 글쓰는 습관도 접었다. 소란스런 세상 뉴스에 눈과 귀를 막았다. 심지어는 먹고, 마시고, 잠자는 것들조차 가슴의 감응에 맡겨버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시 한편이 내 가슴속에서 잔잔한 파도처럼 계속 출렁거리고 있었다.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며 이 시를 가슴속에서 꺼내 케를에게 읽어주며 케를에게 소감을 물었다. 그녀의 반응은 뜻밖이었다.



김지영(사대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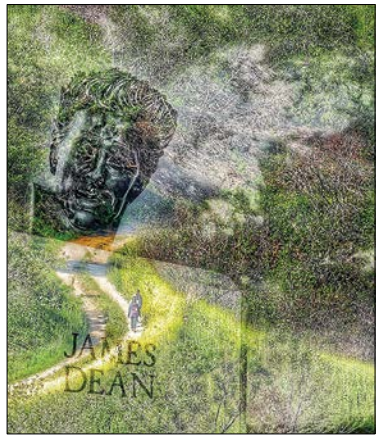
/ 단상 /

내 고향, 삼바실

삼바실의 소리는 소쩍새 울음이다. 삼바실의 색깔은 녹색 잎 속에 살쩍 고개를 내민 진홍의 앵두색이다.
삼바실 - 충청남도 공주군 정안면 전평리, 내가 태어나서 국민학교 졸업할 때까지 살았던 동네이다. 지금은 공주시가 되고 국민학교는 초등학교로 바뀌었지만 세 살 혹은 네 살, 그 무렵 배운 말 중의 하나가 "소쩍새"이다. 그 때 살던 흙벽돌 집은 신 영감 네 조상 무덤이 있는 뒷동산 바로 밑에 있었다. 금잔디가 굵게 깔린 언덕과 우리집 사이에는 벗 나무와 밤나무와 스무 그루쯤 있었다. 그 미니 숲에 소쩍새가 왔다.
소쩍새는 밤 새 운다. "소~~ 짹~적, 소~~적~적" "소"하고 한 순간 멈추고 바로 "적" 그리고 좀 작은 소리로 "적"으로 끝난다. 그 단조로운 반복음에 스르르 잠이 들 기도하고, 새벽녘에는 그 소리에 잠이 깨기도 한다. 엄마에게 들었던가? 배 고피는 며느리가 "숫이 적다"고 한탄하는 소리라고.
어릴 적 엄마와 나는 흙 집 뒷방에서 잤다. 아랫방은 할아버지와 "삼촌 (삼촌)"이 차지하고 있었다. 삼촌은 장가를 간 후 아랫방에 붙은 골방으로 이동 신혼생활을 했다. 그리고 호칭도 작은아버지로 바뀌었다. 우리집 바로 옆집이 외할아버지 집이었다. 외갓집 장독대 아래 앵두나무가 한 그루 있었다. 한 여름 앵두나무 잎새는 진 초록이 되고 그 사이에 진홍의 앵두가 열린다. 아직 처녀였던 이모가 잘 읽은 앵두를 따서 종재에게 담아두고 나를 기다렸다. 사당골 바위 틈에서 솟아오르는 찬물에 담가 두었던 앵두, 그 은근한 단 맛은 아직 복기하지 못한 내 인생의 원초적 행복이었다.

내 고향 삼바실도 이제는 멀어져 간다. "우리 집"은 집터만 남아있고, "우리 동네"는 "남의 동네"가 되어간다.

■나의 타향, 로스앤젤레스
내 70년생 중에 딱 반을 로스앤젤레스에서 산 셈이다. 그래도 이 천사의 도시는 아직 낯설다. "내 타향"이라고 말하기 보다는 한 발 더 멀리 "나의 타향"이라고 해야 어울린다.
"Tinseltown, USA" - 할리우드의 다른 이름이다. 원래 "tinsel"이란 금 실이나 은 실로 짠 뼈가 번쩍하는 옷감이라는 뜻이다. 꿈 속에 사는 사람들이 또 꿈을 꾸는 곳, 할리우드를 품은 천사의 도시는 꿈결 속에 걷는 호수 길 같다. 만인의 타향으로서 로스앤젤레스는 완전한 도시이다.
로스앤젤레스의 환절한 야자 나무 가로



수, 시원하게 뿜어 오르는 분수, 무시로 날아드는 갈매기, 그 모두가 할리우드의 영화 세트장이다. 그 속에서 쫓고, 까불고, 웃고, 우는 인간들은 나름 맡은 바 역할을 충실하게 한다고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한다.
하늘에 있어야 할 별들이 할리우드 거리에는 땅에 박혀 있다. 명성의 길 (the Walk of Fame), 21 킬로미터 구간에 2,690개의 별이 있다. 그리고 이 별들을 보러 일년에 천 만 명의 관광객들이 온다. 로스앤젤레스가 한 눈에 보이는 언덕 그리피스 공원, 거기에는 젊은 제임스 딘의 동상이 있다. 스물 네 살에 죽은 딘, "이유 없는 반항" 젊은이들의 상징. 그런 데 죽은 그도 늙는다.

1931년생, 살아있으면 90 이다. 우리 어머니와 동갑. 할리우드 미모와, 요염의 대명사 마리린 폰트. 그녀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무작정 상경"하여 별이 된 케 이이다. 할리우드의 한 식당에서 웨이터로서 솟아오르는 찬물에 담가 두었던 앵두, 그 은근한 단 맛은 아직 복기하지 못한 내 인생의 원초적 행복이었다.
본점이 지금은 코리아 타운의 중심이 된 윌셔가에 있었다. 1989년 그 자리에 상가 건물을 지으며 돛 형식의 천정만 남아있다. 현재는 그 돛 밑에서 한국식 포장마차 술집이 있다. 그나마 영업을 하지 않는 듯.

로스앤젤레스는 "꿈과 같고, 헛깨비 같고, 물 방울 같고, 그림자 같은 도시이다. 사람들은 이 속에서 "천사의 도시"라는 이름이 주는 허상을 쫓으며 살고 있다. 금강경에 "상이 상이 아닌 것을 알면, 그것이 곧 여래를 보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이 나이에도 그 상을 쫓아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나의 타향"에서 열심히 산다. "내 고향" 삼바실은 가끔씩 환청처럼 들리는 소쩍새 소리만한 남아있다. 늦은 봄에서 한 여름까지 산골 마을의 밤에 아지랑이처럼 찰랑거리던 소쩍새 울음 소리. 이 먼 곳까지 나를 따라와줘서 고맙다.



Long Beach Waterfront at Night

/ 단상 /

마음이 답답할 때



나두섭 (의대 66)

증의 유엔 연령 기준에 의하면 66세-79세는 중년에 속한다.

이길수 없으면 합세하라는 말도 있는데 늘어가는 것을 한탄하고 슬퍼하는 것은 이길수 없는 전쟁을 계속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이라고 생각된다. 무엇을 할 때 동료가 있으면 마음에 위로가 되듯이 늘어가는 과정 중에 안심이 되는것은 내 또래의 동료들도 다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자기의 심정을 알아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일인가? 아무리 스트레스를 안받으려 애써봐도 때로는 억부축으로 생각되는 때가 있는 것은 어쩔수 없는 일이다. 이럴때 자기 말을 귀담아 들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 사람은 행운이다. 그런 사람이 없다면 운동을 하거나 음악을 듣는다든지 명상을 하든지 등 자기에게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마음이 답답한것을 푸는 한 방법은 자연을 접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바다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탁트인 바다를 바라보는것 만으로도 걱정근심을 훌러버릴수 있다. 즐거워하며 모여 있는 사람들, 떠다니는 크고작은 각종 배들, 흰구름 떠있는 푸른 하늘, 그것이 반사된 푸른 물빛, 날아다니는 각종 새들, 때로는 부둣가에 올라와 낚장자는 물개들을 보는 것으로도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다. 기억에 남을 좋은 추억을 만들고 싶다면 해가 질때까지 기다려 보자.

헬렌켈러는 해가 뜨고 지는 것을 한번 만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였는데 매일 볼수 있는 것은 생각하기에 따라 축복이라고 할수 있을 것이다. 하늘의 구름은 석양빛으로 물들어지고 바닷물은 그빛을 반사할 때 물결

으로 떨어지는 오렌지색의 등근 태양을 보는 것보다 더 아름답고 황홀한 것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아하는 사람과 같이 있다면 더욱 좋고 설령 혼자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그 순간만큼은 베토벤의 환희의 송가를 듣지 않더라도 자연의 아름다움에 묻혀 삶의 기쁨을 누리려 볼 수 있으리라.

역사는 돌고도는 것이니 이제는 코비드의 견제에서 벗어나 예전의 상황을 탈환할 시기가 다시 오를것을 기대해 본다. 이것이 우리모두가 기다려온 것이 아닌가?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도, 경기장이나 연주회에 가는 것도, 만나서 음식점에 가는 것도 새롭게 예사롭지 않게 느껴질 것이다.

어려웠던 경험을 통해서 더 성숙해질 것인지 아니면 더 염세적 부정적으로 될 것인지 는 각자의 선택에 달렸다.

원고 모집합니다

주제	독자들의 생각과 식견을 넓혀주는 각 분야의 다양한 글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예술, 문학, 철학, 역사, 과학, 의학, 생명과 환경, 여행, 취미 등]
글의 양	500 단어 (글자 수 2,000자) 내의 글, 레터용지 한장 반 이내
사진	고화질로 찍은 필자의 프로필 사진
보내실 곳	원고와 사진은 news@snuaa.org 로 보내주시십시오.



박준창 (인문 79)



박변의 내뱃대로 영화보기

오멘 (The Omen) 과 다른 공포 영화들

사람은 남을 괴롭히고자 하는 가학적 성격이 있는 동시에 남에게서 학대 받고자 하는 피학적 성격이 있다. 혹자는 가학적 인 것이 강하고 혹자는 피학적인 것이 강 하지만, 깊은 잠재적인 심리의 내면에는 어느 누구든 조금은 있을 것이다. 나는 공포 영화가 그러한 피학적 욕구를 충족시켜 준다고 본다. 불안해 하면서, 오싹해 하면서, 초조해 하면서, 무서워 하면서, 조마조마해 하면서, 관객들은 공포 영화를 본다. 갑자기 뭔가 무섭고 두려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스스로에게 행하는, 그러한 고문을 즐기는 것이다. 공포영화에도 여러가지 서브 장르 (sub-genre)가 있는데, 귀신과 악령을 다룬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일 것이다. 이 중 가장 빼어난 작품은 "오멘 (The Omen) (1976년 개봉)" 이 아닌가 한다. 세계에 영향을 끼치는 미국. 그런 미국의 외교관 부부의 아들이 사탄이 태어 나서, 미국 대통령 집안으로 입양되어 결국 악으로 세상을 지배한다는 발상이 전율스럽다. 핏빛이라고 할만큼 빨간 황혼이, 이스라엘을 보여 주는 것으로 영화가 시작되는데 시작 부분부터 개운하지 않다. 순진해야만 할 아이가 교회가 가까워 질수록 파랗게 질리면서 자지러지는 장면, 집안을 온통 성서로 도배를 하고, 교회의 침탑 장식물에 찢

려 죽는 신부, 멀쩡히 수평으로 있던 트럭에 실린 판유리가 아래로 미끌러져 내려와, 잘려지는 사진사의 목, 관객의 상상의 정도를 초월해 버리는 이런 장면들은 영화가 끝나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 있는 것들이다. 사족으로, 대사 부인 역은 예쁜 얼굴의 배우 리 레믹 (Lee Remick) 이 맡았었는데, 그녀의 공포에 질린 파란 눈동자 역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다. 리 레믹은 이 영화에 이어 금방 1978년에 The Medusa Touch라는 또 다른 초자연적 공포 스릴러 영국 영화에도 나왔다. 이 영화에서도 역시 그녀는 옳은 일을 한 댓가로 자신을 선택해야 하는데, 영화이긴 하지만 두편 연속으로 죽음을 맞는게 너무 슬프다. 이 영화 외에도, 퇴마사의 사투를 그린 "엑소시스트 (Exorcist)(1973년 개봉)" 도 기념비적인 작품. 사탄을 잉태하는 얘기를 그린 "로즈마리의 아기(Rosemary's Baby) (1968년 개봉)" 는 보고 나면 한없이 음울하고 기분이 나빠진다. 공포 영화의 또 다른 서브 장르로, "슬래셔(slasher)" 라고 하는, 엽기적인 신체 훼손과 절단에 의한 살육을 다룬 것들이 있는데 "13일의 금요일 (Friday The 13th)" 이 대표적 작품. 불행히도 이런 영화의 대부분은 쓰레기에 불과한 게 많다. 세번째 서브 장르로는 괴물, 동물, 기타

이상한 존재들이 살인을 하거나 해악을 주는 것 들이다. 흡혈귀(Count Dracula 시리즈), "괴물(Frankenstein 시리즈), 개 (Cujo 및 Pet Sematary), 고양이(Cat's Eye), 심지어 자동차(Christine), 인형 (Child's Play (Chucky)), 어릿광대 (It) 까지도 사악한 존재로 등장하는 영화들. 이런 류의 공포 영화는 오싹오싹 하는 맛이 좀 떨어진다.

또 하나 공포 영화의 기념비적인 작품은 몽환과 살육을 결합한 "엘름 가의 악몽 (A Nightmare on Elm Street) (1984년 개봉)" 이다. 고교생들이 잠이 들기만 하면, 긴 칼날로 된 장갑을 한, 화상으로 일그러진 얼굴의 프레디 크루거(Freddy Krueger)가 찾아와 장갑 칼날로 아이들을 난자한다. 잠만들면 프레디 크루거가 오기 때문에 잠을 안 자려고 두 눈을 빼버린 애도 있다. 꿈속이니 온갖 상상할 수 있는 기묘한 광경들이 나온다. 학교 버스가 마치 백척간두같은 가늘고 높은 절벽 꼭대기위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기도 하고, 육조가 바로 바다 속이 되기도 하고, 몸이 침대 속으로 빨려들면서 피가 석유처럼 분출하기도 한다. 이탈리아 영화 "서스피리아 (Suspiria) (1977년 개봉)"도 공포 영화를 말할때 빼놓을 수 없는 영화. 지알로 또는 이탈리



알리아 감독 다리오 아르젠토 (Dario Argento) 의 작품들이다. 무시무시하고 끔찍하기로 말하자면 일본 공포 영화를 빼놓을 수 없다. 주은 (주원), 감독이 저주(저주)와 원한(원한)이라는 두 단어를 결합해서 만들어 낸 단어라고 한다. 침대에 누워 있는데 까만 머리에 외눈을 한 귀신이 이불을 들치면서 다리 아래에서 부터 기어 들어 온다면. 그리고 얼굴을 갖다 대고 뻘뻘 눈을 마주친다면... TV에서 귀신이 기어 나온다면... 그런 끔찍한 설정이 바로 우리가 사는 침실, 욕실, 건물 복도같은 생활 공간이라 영화가 끝나도 무섭다. 피할 곳이 없어지면서 느끼는 그 무력감이란...

안 지알로라고 해서 위 3가지 서브 장르를 다 섞어 놓은 것에 스릴러에 여자들 누드까지 가미한 이탈리아 식 공포물의 대표적 작품. 이

/ 신간 소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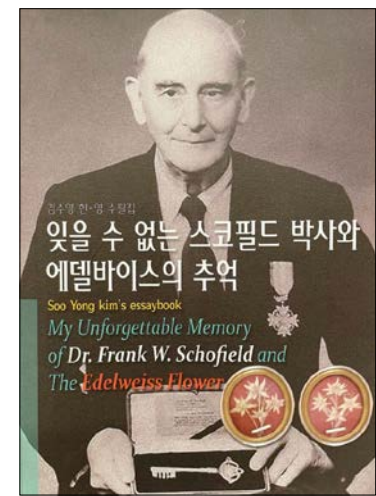
김수영(사대 57)

'잊을 수 없는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

시인이자 수필가인 김수영(사대 57)동문이 프랭크 스코필드 박사와의 인연 등을 담은 한영 수필집 '스코필드 박사와 에델바이스의 추억'(한국신문협회, My unforgettable Memory of Dr.Frank W. Schofield and The Edelweiss Flower-satin)을 최근 출간했다. 캐나다의 선교사 스코필드 박사는 한국의 독립과 인권 향상을 위해 노력한 독립 유공자다. 한국에서 가장 존경 받는 외국인 선교사로 꼽히며, 외국인임에도 국립서울현충원에 안장됐다.

19세 때 서울대 사범대에 재학 중이던 김 작가는 당시 수의과 대학에서 강의하던 스코필드 박사의 통역을 맡은 것을 계기로 그와 소중한 인연을 맺었다. 김 작가는 수필집 '스코필드 박사와...'를 통해 31 운중에 참가하고 제암리 학살사건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한국을 위해 헌신한 스코필드 박사의 활동을 포함, 그의 생애를 조명하고 개인적 인연 및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수필집 제목도 스코필드 박사가 스위스 여행 후 한국에 돌아와 말린 에델바이스

꽃잎을 넣은 액자를 김 작가와 김영교(시인) 자매에게 선물한 일화에서 비롯된 것이다. 김 작가도 한국에 가면 현충원을 찾아 스코필드 박사 묘소에 참배하고 동상 제막식 등 고인을 기리는 행사에 여러 차례 참석했다. 총 333쪽에 달하는 수필집엔 역사, 여행, 영화와 문학, 신앙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김 작가의 수필과 시도 담겼다. 책 말미엔 스코필드 박사 관련 사진들도 수록됐다. 김 작가는 "스코필드 박사 기일(4월 12일) 전에 수필집을 내 기쁘다. 스코필드 박사



가 어떤 분인지 널리 알고 싶다"고 말했다. 목사이기도 한 김 작가는 70세였던 2009년, 민주문인협회 수필 부문 당선으로 등단했다. 지난 2019년엔 제12회 민초 해외문학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받았다. <문의: 714-724-3577>



이회백(의대 61)

/ 단상 /

알래스카 비행 경험담

2006년 FAA 통계에 의하면 알래스카 인구 61명당 한 명이 비행사로 등록되어있다. 미 전국 인구당 비행사수의 여섯배다. 또 앵커리지에 있는 Lake Hood는 전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이착륙이 많은 수상비행장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1972년 내가 알래스카에 갔을때 나도 비행기 배울 생각을 하고 있던 중이었는데 같은 병원에 나보다 몇달 먼저 온 의사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마침 비행훈련 교련 면허 소지자를 치료한 인연으로 그로부터 비행연습을 받기로 하고 시작할 날까지 받아놓고 있었다.

Don Jonz라는 이름의 이 비행사는 알래스카에서는 상당히 알려진 소위 bush 비행사였다. 그런데 그가 비행연습을 하기로 약속한 며칠전에 그당시 유일한 알래스카 하원 의원 이었던 Nick Begich의 재선운동자금 모금차 하원 다수 민주당 지도자였던 루이지애나의 Hale Boggs 의원을 태우고 앵커리지에서 Juneau 로 가던 도중 실종이 되었다. 그가 조종하던 비행기는 Cessna 310 이었는데 실종된 인물이 정계계몽인이라 9일간의 대대적인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찾지 못하고 수색을 중지했다. 그리고 아직도 발견 되지 않고 있다.

Emergency Locator Beacon이라하여 추락시에 자동적으로 전파를 보내 추락장소를 찾는 데 도움을 주는 장비를 모든 비행기에 의무적으로 장치하게 된것은 이 사건이 계기가 된것이다. 사족이지만 요새도 가끔 ABC 정치토론에 출현하는 Cokie Roberts는 이때 실종된 Hale Boggs의 딸이다.

이 사건 때문에 이 친구는 비행기 배우는것을 포기 하고 말았다. "내가 과부 되는 꼴 봐야겠어?" 하는 마누라 소리에 그만 손을 들고 만 것이다. 덕분에 나도 쾅겨서 머뭇거리다가 십 년을 넘겼다.

비행사 자격을 얻자면 두가지 과정을 거쳐야한다. 첫째는 지상에서 공부하는 소위 Ground Course다. 그거야 위험이 없으니 못 받을것 없지 해서 그 과정을 마치고 시험을 쳐서 통과했다. 두번째 단계는 실제 비행연습하는 Flying Lesson인데 크만 먹고 받아보기로 했다. 교관을 정하고 연습용 Cessna 150을 빌렸다. 이 비행기 빌리는 값이 그 당시 시간당 36불이었는데(기름값 포함) 60초에 60분을 곱하니 3,600초이러구 일초에 일전 씩 지불하는 계산이 나왔다. 물론 교관 교습료는 따로 50불 내야 한다.

비행교관이 이만하면 혼자 비행해도 괜찮겠다고 판정하면 단독 비행허가 사인을 해주는데 첫번 단독비행을 "Maiden Flight" 라 하고 이때는 교관이 활주로 옆에서 주시하고 있다가 무사히 착륙하면 손을 내밀고 축하해

준다. 단독비행에 숙달이 되면 Cross Country Flight라는과정을 거쳐야한다. Cross Country Flight는 한 비행장에서 백마일 이상 떨어진 다른 비행장에 착륙했다가 다시 제3의 비행장에 가서 내린 후 다시 본래 비행장에 돌아오는 과정을 말한다. 내가 살던 곳에서는 이 노선이 정해져 있어 Fairbanks에서 북쪽으로 Bettie이라는 Brooks산맥 입구에 위치한 마을에 간다. 이 마을은 가을에 Brooks 산맥으로 사냥 가는 사람들의 전초기지다. 거기서 서쪽으로 비행, Tanana라는 인디언 마을에 들렀다가 Fairbanks로 돌아오는 코스를 밟는다. 날을 잡아 Bettie를 향해 뚝는데 기상 이 나빠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 앞이 잘 안보



내 개인 비행기 Citabria와 비행중인 나의 뒷모습(작은사진)

이자 기수를 돌려 돌아오고 다음날 다시 갔다. 돌아 오는 도중 Yukon강과 Tanana강이 만나는 곳을 지나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내려앉고 그 바람에 내 몸은 위로 솟구쳐 비행기 천장에 머리가 부딪쳐 혼이 났다. 그곳은 두강이 산을 경계로 두고 만나고 있어 바람이 부딪치는 곳이라 항상 그러니 조심 하라는 말을 선배 비행사에게서 뒤늦게 들었다.

40시간 이상의 비행시간이 축적되면 check ride라는것을 받을 자격이 생기게 되고 거기 합격하면 교관이 FAA에게 개인 비행사(private pilot) 자격이 있다고 통고한다. 그러면 FAA는 비행면허증을 발부한다. 이 비행면허증은 한번 받으면 평생 유효하다. 그러나 비행 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평생 비행 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아니다.

2년마다 비행교관을 부러 비행 재검사(flight review)를 받고 비행기록 일기장(pilot logbook)에 싸인을 받지 않으면 안된다. 또 2년에 한번은 신체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력검사, 청력검사등을 받아야 하는데 FAA에서 지정된 자격있는 의사만이 할 수있다. 짐작할 수 있듯이 이 의사는 대개 비행사이면서 의사인 사람이다. 물론 혈당검사도하

게 되는데 어느해 인가 내 담당 의사에게서 혈당이 좀 높으니 단 것을 삼가라는 주의를 받았다. 2년후 다시 검사했을 때 계속 혈당이 높자 당뇨병인것이 분명해서 내 담당의사는 sign 할수 없게 되어 내 신체검사결과는 앵커리지에 있는 더 고위 검사관에게 넘겨져 그가 sign을 하고서야 비행할수 있게 되었고 또 신체검사를 매년 받아야만 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기다리면 세월이 안가지만 기다리지 않는것은 왜 그렇게 빨리 오는지 신체검사 받은게 엇그제 같은데 벌써 또 받아야 하나? 하게 되고 매일 신체검사만 받는 기분이고 귀찮아졌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행하는데 숙달이 되자 의사들끼리가는 caribou사냥에 나도 한류 끼기로 했다. 봄이 가까워 오고 따라서 낫길도 좀 길어졌을때 이곳에서 약 450마일 서북쪽에 있는 Selawik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사냥이다. 첫눈이 오자마자 바퀴를 떼고 ski를 달았기에 눈에 내릴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고 뒷좌석을 떼고 5갤런 짜리 기름 네 통을 실었다.

비행기를 하나 사기로 작정하고 물색한 비행기가 N 2514Z다. N은 number를 말하고 2514Z가 내 비행기 번호다. 비행사가 사용하는 용어가 중요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비행중엔 항상 그렇지만 특히 관제탑 관제사와 이야기 할때는 지켜야 할 중요사항이 있다. 첫째 될수록 짧아야 한다. 바쁘니까. 둘째는 명확해야 한다. 아니 명확하게 첫째 조건일 것이다. 만일 서로의 의도를 잘못 이해했을때 나는 결과는 치명적일 수가 있다. 잘 알아 들을수 없으면 다시 이야기 해달라고 요구 해야한다. 비행사가 관제탑 관제사에게 다시 묻는 것은 결코 실례가 아니다. 어떤 때는 관제사가 자기 지시를 알아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기가 지시한 사항을 반복해서 말하라고 요구한다. 활주로 상에서 두 비행기가 부딪히는 사고는 이런 이유로 일어나는 일이 많다. 예를 들어 1977년에 Canary Islands, Tenerife 에서 일어난 KLM 과 PAN AM(둘다 보잉 747)이 부딪쳐 583명의 사망자를 낸 사건은 여러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관제사와 pilot 과의 의사소통이 잘못된게 한 원인이었다. 전세계 Aviation용어는 영어로 통일되어있다. 대한항공이 인천공항을 뜨고 내릴때 조종사와 관제사가 둘다 한국인이라 하더라도 반드시 영어를 써야한다.

그리고 alphabet은 A면 A라 하지 않고 Alpha, B는 Bravo, C는 Charlie, D는 Delta 등으로 불러야 한다. 이것은 예를 들어 A는 eight 과 혼동할수가 있기 때문이다. 숫자는 one, two, three 그대로 부른다. 그러나 9는 nine으로 부르지 않고 "niner" 로 부른다. 이유는 nine 하면 독일어의 "Nein"과 혼동될수 있기 때문이다. 내 비행기의 call sign은 그래서 Two Five One Four ZULU다. 이 비행기는 단일 engine, 2인 탑승용으로 앞에 한사람 뒤에 한사람이 탄다. 또 이 비행기는 high wing, 날개가 위에 달려 있으며 방향조종(지상에서는) 뒷바퀴가 하는 Tail Dragger이다. Tail dragger의 단점은 잘못된 소위 ground loop라 하여 제자리에서 회도는 일이 일어날수 있다는 것이다. 앞 두바퀴가 원의 중심으로 고정되고 뒷바퀴가 원을 그리게 되는 그런 현상이다.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내릴때 앞바퀴와 뒷 바퀴가 동시에 땅에 닿도록 하고 내리고 땅에 닿자마자 즉시 조종간을 뒤로 잡아 당겨 뒷 바퀴에 무게가 많이 가고 앞바퀴는 되도록 적게 가도록 해야한다. 자동차 경주 운전사가 경주에 이긴후 Victory행진 하다가 일부러 회 도는 것을 보면 이 ground loop라는 게 무엇인지 짐작 할수 있을 것이다. 포장이 된 활주로의엔 tricycle gear라고 해서 Main Landing Gear에 달린 바퀴가 양쪽에 하나씩 뒤에 있고 앞에 바퀴가 하나 있어 이 앞바퀴가 방향을 조정하게 되어있는 비행기를 쓰는 게 대부분이다. 아이들이 타는 세발자전거가 방향전환을 문제없이 쉽게 하듯 비행기도 마찬가지로 쉽다. 그런데 이런 불편한 tail dragger를 왜 쓰는가. 큰 비행기도 옛날에는 tail dragger가 많았다. 2차대전때 쓰던 군용비행기를 보면 그렇다. tail dragger의 장점은 포장이 잘 안된, 특히 활주로가 soft 한곳에도 내리기가 비교적 안전하다는데 있다. tricycle gear가 달린 비행기는 이런데 내리면 앞바퀴가 흩어져 landing gear가 부러지거나 비행기가 꼬꾸라 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소위 bush plane은 대부분 tail dragger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행하는데 숙달이 되자 의사들끼리가는 caribou사냥에 나도 한류 끼기로 했다. 봄이 가까워 오고 따라서 낫길도 좀 길어졌을때 이곳에서 약 450마일 서북쪽에 있는 Selawik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사냥이다. 첫눈이 오자마자 바퀴를 떼고 ski를 달았기에 눈에 내릴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고 뒷좌석을 떼고 5갤런 짜리 기름 네 통을 실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어느 정도 비행하는데 숙달이 되자 의사들끼리가는 caribou사냥에 나도 한류 끼기로 했다. 봄이 가까워 오고 따라서 낫길도 좀 길어졌을때 이곳에서 약 450마일 서북쪽에 있는 Selawik이라는 곳에 가서 하는 사냥이다. 첫눈이 오자마자 바퀴를 떼고 ski를 달았기에 눈에 내릴 준비는 이미 되어 있었고 뒷좌석을 떼고 5갤런 짜리 기름 네 통을 실었다.

Table of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21 event.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recipient name. Donors include 조달훈, 조상근, 최경석, etc.

동창회비 (2차 회기: 2020. 7. 1 ~ 2021. 6. 30)

Table of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21 event, continuing from the previous table.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recipient name. Donors include 김성철, 김석홍, 김성호, etc.

Table of donors and amounts for the 2021 event, continuing from the previous table. Includes columns for donor name, amount, and recipient name. Donors include 정규남, 전병현, 정유석, etc.

남가주 CA
공인회계사
Kyung Moo Kim CPA & Accounting Corp.
김경무 (공대 69)
T: 213-616-1390
3435 Wilshire Blvd., #115, LA, CA 90010
AAMKO Consulting Co.
강신용 (사대 73) 공인회계사
T: 213-380-3801
3850 Wilshire Blvd., #201, LA, CA 90010
이강원 공인회계사
이강원 (인문대 76)
T: 213-387-1234
3530 Wilshire Blvd., #141, LA, CA 90010
GSK LLP Certified Public Acct. & Business Consultants
강호석(상대 81)
T: 213-380-5060 (LA, CA)
T: 714-530-3630 (Garden Grove, CA)
JUN CHANG CPA & Accounting Corp.
장 준 (인문 85)
T: 818-722-2811
11145 Tampa Ave. Suite 26A Northridge, CA 91326
STANLEY Cha, CPA
차기민 (공대 85)
T: 818-772-2811, 213-272-2460 / jun@junchangcpa.com
19520 Nordhoff St., Suite 16, Northridge, CA 91324
229 N. Euclid St., Fullerton, CA 92832
임춘택 공인회계사
임춘택 (상대 68)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김원철 & 황기주 공인회계사
김원철 (농대)
T: 213-380-4646
3700 Wilshire Blvd., #750, LA, CA 90010
권국원 공인회계사
권국원 (공대)
T: 213-480-0070 / kkwuncpa@yahoo.com
869 Irolo St., LA, CA 90005
기계 / 기술 / 전자
Link TV Media
김원탁 (공대 65)
O: 818-514-6780 / M: 818-720-2373
24208 Park Athena Calabasas, CA 90302
linkboxusa@gmail.com / www.linkboxusa.com
Turbo Air, Inc.
서치원 (공대 69)
T: 310-719-5422
3421 Oakridge Terrace, Calabasas, CA 91302
Tayco Engineering, Inc.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oress, CA 90630
www.taycoeng.com

마켓
Han Nam Chain Market
하기환 (공대 66)
T: 213-381-3610
2740 W. Olympic Blvd., LA, CA 90006
변호사
한태호 변호사 법률그룹
한태호 (인문대 75)
T: 213-639-2900 / F: 213-639-2909
3699 Wilshire Blvd., Suite 860, LA, CA 90010
www.haanlaw.com
신혜원 변호사
신혜원 (사대 81)
T: 213-385-3773
3435 Wilshire Blvd., #2230, LA, CA 90010
Law Offices of KYUNG HEE LEE, PC
이경희 (인문대 83)
T: 213-385-IMIN (4646)
3435 Wilshire Blvd., Suite 1110, LA, CA 90010
부동산
Team Spirit Realty
이종묘 (간호대 69), Jennie Lee
T: 714-396-0624 / jennielee@gmail.com
30 Corporate Park, Suite 207, Irvine, CA 92606
식품 / 음식점
자연나라 (Jayone Foods, Inc.)
이승훈 (상대 74)
T: 562-633-7400
7212 Alondra Blvd., Paramount, CA 90723
해태 USA (Haitai Inc.)
정정우 (수외대 74)
T: 323-890-0101
7227 Telegraph Rd., Montebello, CA 90640
복창동 순두부
이태로 (법대 50)
B) (213) 382-6677
3575 Wilshire Blvd, Los Angeles, CA 90010
의료 / 병원
Seoul Medical Group
차민영 (의대 76)
T: 213-480-7770
520 S. Virgil Ave., #507, LA, CA 90006
VIP 성형외과
최광휘 (의대 70)
T: 323-965-1717 / F: 323-965-1855
4160 Wilshire Blvd., 2nd floor, LA, CA 90010
akchoi52@gmail.com
실로암 병원 (Siloam Medical Clinic)
신경정신과 정균희 (의대 64)
Christopher K.Chung MD
T: 213-386-5002 / drcchung@yahoo.com
2528 W.Olympic Blvd., #103, LA, CA 90006
기타

Beverly Cardiology Group
Il Young Kim MD (의대 65)
Diana Kim MD
T: 323-662-1175 / www.beverlycardiology.com
3919 Beverly Blvd., #100, LA, CA 90004
정수만 암내과, 혈액내과
정수만 (의대 66)
T: 714-539-6414
12555 Garden Grove Blvd., #309, Garden Grove, CA 92843
의료 / 치과
Choi Gilbert Pharmacy
최무식 (약대 66)
T: 714-638-8230/ markchoirx@gmail.com
9240 Garden Grove Blvd., #20 Garden Grove, CA 92844
황준오 DDS
황준오 (치대 73)
T: 408-732-0493
877 W. Fremont Ave. #H3, Sunnyvale, CA 94087
Seonho Ha Prosthodontics
하선호 (치대 81)
T: 213-365-1008 / ddsshp@yahoo.com
3240 Wilshire Blvd., #510, LA, CA 90010
의료 / 동물병원
Animal Medical Clinic
신동국 (수외대 76)
T: 714-990-1411
3257 Associated Rd., Fullerton, CA 92835
Francis Animal Hospital
최재현 (수외대 66)
T: 909-627-0951 / 909-627-0715
5284 Francis Ave., Chino Hills, CA 91710
Richmond Veterinary Hospital
한상봉 (수외대 67)
T: 510-232-3465
4704 MacDonald Ave., Richmond, CA 94805
Van Buren Animal Hospital
오영문 (수외대 64)
T: 951-687-2630
5535 Van Buren Blvd., Riverside, CA 92503
유통 / 운송 / 원자재
SeAH Steel America, Inc.
이병준 (상대 55)
T: 949-655-8000
2100 Main Street #100, Irvine, CA 92614
자동차 / 서비스
A.P.W. 자동차 부품
서동영 (사대 60)
T: 310-753-9636
1073 E. Artesia Blvd., Carson, CA 90746
기타

ACCU Construction, Inc.
염동해 (농대 74)
T: 714-641-4730
2098 S. Grand Ave., Suite A, Santa Ana, CA 92705
라 캐나다 한인교회
독고원 (공대 65)
T: 818-790-7320
1700 Foothill Blvd., La Canada, CA 91011
San Bernardo Foot Clinic Inc.
이상대 (농대 80)
B: 909-882-3800 / C: 714-323-8612
2095 N. Waterman Ave., San Bernadino, CA 92404
뉴욕 NY-NJ
공인회계사
KL CPA & Associates LLC
이경림 (상대 64)
T: 212-768-9144
1430 Broadway, Suite 306, New York, NY 10018
http://klcpagroup.com/klcpa/
리테일
New York Golf Center
이전구 (농대 60)
T: 212-564-2255
131 W. 35th St., New York, NY 10001
www.nygolfceneter.com
변호사
신용남 변호사
신용남 (농대 70)
T: 718-463-3131 / petershinesq@gmail.com
158-14 Northern Blvd., 2FL, # UL-2, Flushing, NY 11358
금융
Edward Jones Investments – Financial Advisor
윤의규 (상대 82)
T: 201-978-7055
560 Sylvan Ave suite 3270, Englewood Cliffs, NJ 07632
edwardek.yun@edwardjones.com
의료 / 병원
백승원 위장내과
백승원 (의대 73)
T: 201-302-9774 / 732-744-9090
1608 Lemoine Ave., #200, Fort Lee, NJ 07024
1921 Oak Tree Rd., Edison, NJ 08820
석창호 위장내과
석창호 (의대 66)
T: 718-461-6212
41-61 Kissena Blvd., #27, Flushing, NY 11355
이창석 내과
이창석 (의대 72)
T: 718-762-4400
40-5 Bowne St., Flushing, NY 11354
김해암 정신의학 전문의

김해암(의대 53)
T: 212.879.2322
230 East 73rd Street Suite 1A New York, NY 10021
E-mail : haeahm@aol.com
박범렬 소아과
박범렬 (의대 75)
T: 718-229-1188 / 718-899-4600
211-50 45th Dr., Bayside, NY 11361
40-10 70th St., Woodside, NY 11377
박중호 소아과
박중호 (의대 79)
T: 201-242-1002
44 Sylvan Ave., Englewood Cliffs, NJ 07632
윤세웅 비뇨기과
윤세웅
T: 718-335-3333
75-21 Broadway, Flushing, NY 11373
100-25 Queens Blvd., #16C, Forest Hills, NY 11375
LIC HOTEL / 뉴욕스파 앤 사우나
김승호 (공대 71)
T: 718-463-0001
44-04 21st Street. Queens NY 11101
jeewha@hotmail.com
김치갑 통증병원
김치갑 (의대 73)
T: 201-541-1111
475 Grand Ave., Englewood, NJ 07631
김승관 통증 및 재활의학 병원

김승관 (의대 70)
T: 718-321-2870
35-20 147th St., #1D, Flushing, NY 11354
의료 / 치과
김성래 치과 (Closter Dental)
김성래 (치대 76)
T: 201-750-0011
570 Piermont Rd. Closter Plaza, Closter, NJ 07624
의료 / 동물병원
Ridgefield Park Animal Hospital
김기택 (수외대 81)
T: 201-814-0095
199 Main St., Ridgefield Park, NJ 07660
유통 / 네일제품
Kiss Products, Inc
김광호 (문리 62)
(516)625-9292/ (516)625-5599/1962
57 Seaview Blvd. Port Washington, NY 11050
www.kissusa.com / cfo@kissusa.com
워싱턴 DC MD-VA-MN
기계 / 기술 / 전자
Drivetech, Inc.
엄달용 (공대 69)
T: 703-489-2474
25492 Carrington Dr., South Riding, VA 20152
www.drivetechinc.com

김권식 (공대 61)
T: 612-961-6878
10025 Valley View Rd Ste 140, Eden Prairie, MN 55344
www.EVS-ENG.com
식품 / 음식점
우래옥
백행남 (문리 60)
T: 703-827-7300
8240 Leesburg Pike., Vienna, VA 22182
www.woolaok.com
재정 / 보험 / 컨설턴트
C & N 종합보험 / 뉴욕 라이프
정세근 (자연대 82)
O: 703-663-8400 / C: 703-785-8467
7023 Little River Tpke., #403, Annandale, VA 22003
Fairway Asset Corporation
남옥현 (경영대 84)
T: 301-279-6969
15400 Calhoun Drive, Suite 120 Rockville, MD 20855
www.fadloan.com
필라델피아 PA
건축
Timothy Haahs & Asso.
손재욱 (생활과대 77)
T: 484-342-0200
550 Township Line Rd., #100, Blue Bell, PA 19422
www.timhaahs.com
의료 / 치과

Blue Bell Family Dentistry
김순주 (치대 95)
T: 610-278-1110
1732 Dekalb Pike, Blue Bell, PA 19422
식품 / 음식점
이즈미 일식당
최종문 (공대 61)
T: 267-408-7342
1222 Welsh Rd., North Wales, PA 19454
오레곤 OR
엔지니어링
Flonomix Inc.
박희진 (농대 78)
T: 503-648-0775
5897 NE Alder St., Hillsboro, OR 97124
www.flonomix.com
기타
서울대학교 한국어 교육 센터
서울대 언어교육원
T: 82-02-880-5488
kjp@snu.ac.kr

SNU Alumni Association USA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회비 및 후원금

동창회 후원금	동창 회비	업소록 광고비	특별 후원금
<input type="checkbox"/> \$200 <input type="checkbox"/> \$500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 _____	<input type="checkbox"/> \$75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150 (2020. 7 ~ 2022. 6) <input type="checkbox"/> \$3,000 (중신이사회비)	<input type="checkbox"/> \$240 (2020. 7 ~ 2021. 6) <input type="checkbox"/> \$480 (2020. 7 ~ 2022. 6) 일반 광고 문의: news@snuua.org	<input type="checkbox"/> Scholarship Fund (장학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Charity Fund (나눔) \$ _____ <input type="checkbox"/> Brain Network 후원금 \$ _____ <input type="checkbox"/> 모교발전기금 \$ _____

후원금 용도: 장학금은 뛰어난 동문들의 학업을 돕는데 사용됩니다. Charity Fund는 동창회 자선 사업을 위해 쓰입니다. 모교발전기금은 모교와 미주 동창회의 위상을 높이기 위하여 쓰입니다. Brain Network 후원금은 석학 초빙 강연회 등 동문들간의 네트워킹 증진을 위해 쓰입니다. 중신 이사회비는 SNUAA-USA Century Foundation 에 적립됩니다. 동창회 후원금과 동창 회비는 회보 발간 및 미주동창회 행사와 제반 운영을 위해 사용됩니다. 동문님의 후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Total: \$_____. Make check payable to **SNUAA-USA.**

보낼 곳: SNUAA-USA, 158-14 Northern Blvd. 2nd Fl., Suite UL-2 Flushing, NY 11358 | Tel: 718-463-3131 Email: news@snuua.org

<보내주시는 회비 및 후원금 합계가 \$250 이상 되시는 동문께서는 영수증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한글이름:	영문이름:	단체대:	입학연도:	지부:
E-mail:		Cell Phone:		
주소:		*주소가 바뀔경우에만 기입 바랍니다.		

미주 동창회보는 미주 동문의 역사 기록입니다.

제15대 미주동창회

역대회장
박윤수 (문) · 강수상 (의) · 이병준 (상) · 오인석 (법) · 이용락 (공)
오홍조 (차) · 이영목 (공) · 이진구 (농) · 송순영 (문) · 김은중 (상)
오인환 (문) · 손재욱 (가정)
명예회장: 윤상래 (수)

제15대 회장: 신응남 (농)
고문: 박종수 (수), 주중광 (약)

차기회장: 노명호 (공)
Brain Network 공동 위원장: 하용출 (문), 이강원 (공)
Brain Network 공동 부위원장: 조달훈 (사), 박영철 (농)
Corporate Counselor: 최형무 (법)

집행부
사무총장: 연영재 (공)
총무 국장: 문현호 (음), 간사: 이지희
재무 국장: 한경진 (음)
IT 국장:
업무 국장: 연영재 (공)
섭외 / 홍보 국장: 유시영 (문)
조직 및 광고국장: 백옥자 (음)
문화 국장: 홍선례 (음)

회보 발행인: 신응남 (농), 편집인: 오치주 (농)
편집 고문: 광상희 (문), 이희간 (간)
편집장: 박정원
편집 위원: 추재욱 (의), 최철용 (농), 최한용 (농), 연봉원 (문)
송웅길 (신문), 조달훈 (사), 최형무 (법), 이수호 (보)
백옥자 (음), 홍선례 (음), 문현호 (음), 한경진 (음)

지역 기자단: 홍선례 (LA), 백옥자 (LA)

논설 위원장: 이항렬 (법)
논설 위원: 김 영 (수), 김해암 (의), 정태영 (문), 박평일 (농), 고병철 (법), 백 순 (법), 장동만 (문), 김창수 (약), 민경훈 (법), 유재종 (법), 연봉원 (문), 이채진 (문), 장석정 (법), 정홍택 (상), 조동준 (의), 차민영 (의), 최용완 (공), 하용출 (문), 김홍욱 (문), 김재훈 (공), 김지영 (사), 최형무 (법), 이종호 (인)

회칙 위원회: 위원장 김병연 (공)
회칙위원: 김병연 (공), 김용현 (상), 서종민 (공), 이강원 (공), 조정현 (수), 이민연 (법), 한재은 (의), 함은선 (음)

미주동창회 후원위원회: 위원장
회관 건립 연구 위원회:
회보 개선 위원회: 위원장 주기목 (수)
나눔 위원회: 위원장 황선희 (공)

동창회 운영기금 century foundation 관리 위원회: 위원장 손재욱(전회장)

장학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농), 부위원장: 김승호 (공)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이상강 (의), 이원섭 (농), 강창석 (의), 강에드워드 (사)

포상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위원: 각 지부 회장

모교 발전기금 위원회: 위원장 신응남 (회장)
장학위원: 오인환 (전회장), 손재욱 (전회장), 윤상래 (직전회장)
감사: 김명승 (상), 강호석(상)

미주 지역동창회 회장단

지역	이름	전화	Email	회계연도
남가주 S.CA/NV	회장	최용준 (수의대)	818-450-7868 yongjunechoi6080@yahoo.com	Feb-Jan
	차기회장			
북가주 SAN FRANCISCO	회장	임준원 (공대 77)	408-220-4260 joonwim@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최승희 (사회 81)	408-313-4239 shechoi01@gmail.com	
뉴욕 NY/NJ	회장	조상근 (법대 69)	201-913-0565 amcoinc@msn.com	July-Jun
	차기회장			
뉴잉글랜드 MA/RI/NH/ME/VT	회장	김정선 (문리 66)	617-780-7205 jkim@systemic.com	Jul-Jun
	차기회장	김유경 (음대 72)	781-223-4411 YkimLC@yahoo.com	
텍사스 LA/DALLAS	회장	강성호 (수의 81)	214-215-4447 oah9999@yahoo.com	Jan-Dec
	차기회장			
룩키마운틴스 MT/CO/WY/NM	회장	최용문 (공대 77)	ymcgreencorp@gmail.com	Jan-Dec
	차기회장			
미네소타 MINNESOTA	회장	차재호 (농공학 84)	651-769-5343 jaehocha@yahoo.com	Jan-Dec
	차기회장	용정식 (농화학 86)	610-952-3673 jyong@umn.edu	
샌디에고 SAN DIEGO	회장	유재호 (공대 90)	469-387-7922 blue9071@gmail.com	Nov-Oct
	차기회장			
시카고 IL/IN/WI/MI	회장	김윤하 (공대 66)	847-726-0528 yunhakim@comcast.net	Jan-Dec
	차기회장	김승주 (간호 69)	630-341-1943 seungjoochang@gmail.com	
애리조나 ARIZONA	회장	오윤환 (공대 56)	520-271-2601 youn.oh@gmail.com	
	차기회장			
앨래스카 ALASKA	회장	윤재중 (농대 55)	907-223-0887 jaeyoon@hotmail.com	
	차기회장			
오레곤 OR/ID	회장	전병택 (상대 65)	bryanchon@gmail.com	Jan-Dec
	차기회장			
오하이오 OHIO	회장	이성우 (상대 72)	614-370-5761 rimshake@ameritech.net	
	차기회장			
워싱턴 DC DC/MD/VA/WV	회장	박상근 (법대 75)	703-447-8175 sangkuenpark@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워싱턴 주 WASHINGTON	회장	이명자 (간호 74)	drmialee@gmail.com	Jan-Dec
	총무	임현민 (공대 84)	425-444-3899 heonmin.lim@microsoft.com	
유타 UTAH	회장	김한섭 (공대 93)	734-904-9672 hanseup@ece.utah.edu	Jan-Dec
	차기회장			
조지아 GA/AL/MS	회장	김재호 (공대 80)	404-372-2621 jhkros@gmail.com	
	차기회장			
오스틴 중부텍사스 MID-TEXAS	회장	이학호(수의대 59)	512-487-4390 Hakho3830@gmail.com	
	차기회장			
필라델피아 PA/DE/S.NJ	회장	지흥민 (수의대 61)	215-512-9510 hmchi8760@gmail.com	Jul-Jun
	차기회장	이성숙 (가정 74)	610-417-4789 ssh1120@gmail.com	
플로리다 FLORIDA	회장	최희덕 (사대 68)	973-610-5857 lee07073@hotmail.com	Jan-Dec
	차기회장			
캐롤라이나 SC/NC/KY	회장	김건일(상대 59)	417-277-1636 ken_13269@msn.com	
	차기회장			
커네티컷 CT	회장	유시영 (문리 68)	203-305-3910 t60syu@gmail.com	
	차기회장	박용혜 (상대 83)	203-767-8187 yhptax@gmail.com	
테네시 TENNESSEE	회장	김상호 (공대 86)	856-386-1094 kimsh@ornl.gov	Jan-Dec
	부회장			
하와이 HAWAII	회장	성낙길 (문리 77)	808-956-2611 nsung@hawaii.edu	Jul-Jun
	총무	전수진 (식품 89)	808-956-8283 soojin@hawaii.edu	
하틀랜드 IA/MO/KS/NE/AR/OK	회장	이치현 (약대 77)	913-814-9452 leech@umkc.edu	Sep-Aug
	차기회장			
휴스턴 HOUSTON	회장	구자홍 (상대 70)	713-206-1041 jykey2003@yahoo.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밴쿠버	회장	장희순(문리 75)	778-990-6589 sphro17@gmail.com	Jan-Dec
	부회장			
캐나다 앨버타	회장	정종기 (공대 70)	403-617-7585 movics@shaw.ca	Mar-Feb
	부회장			

www.taycoeng.com

Tayco Engineering, Inc

Our product lines
Flexible Heaters/ Flexible Cable
High Temperature Metallic Heaters
Temperature Sensors/ Spacecraft Subsystems

정재훈 (공대 64)

T: 714-952-2240 / jchung@taycoeng.com/ 10874 Hope St. PO Box 6034, Cyress, CA 90630

jayone.com

한인대표 식품기업 자연나라로 성장하겠습니다!

www.jayone.com

Since our founding in 2000, Jayone Foods, Inc. has always maintained the sole mission of sharing our passion for Asian Food - especially Korean food. With so many bold flavors, vivid colors, and countless health benefits, it would be a shame not to spread the word far and wide! As the first company to introduce the idea of enjoying seaweed as a snack, we take pride in our innovation and are always thinking of new and unique ways to bring delicious foods to your table.

In the 18 years since our humble beginnings, Jayone has developed over 700 different food items ranging from fresh produce to frozen goods and you may already be familiar with some of our other brands such as Sea's Gift and Jayone! In addition to our own brands, we've also partnered up with many other brands in our journey to spread the goodness of Asian foods because, at the end of the day, we believe that good food is a universal language that everyone can relate to and enjoy no matter who you are.

Tel: 562-633-7400 대표: 이승훈 (상대 74)

www.dyouusa.net 대표이사 박수경 [84入 소비자학과]

since 1999 듀오 USA

결혼해듀오

결혼이란,
집 밖을 나서지 않아도
만날 수 있는 사이가 되는 것

LA 213-383-2525 NY 201-947-2525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서울대학교 미주동창회
제 29차 정기총회의 | 2020년 8월21-23일

감 사 합 니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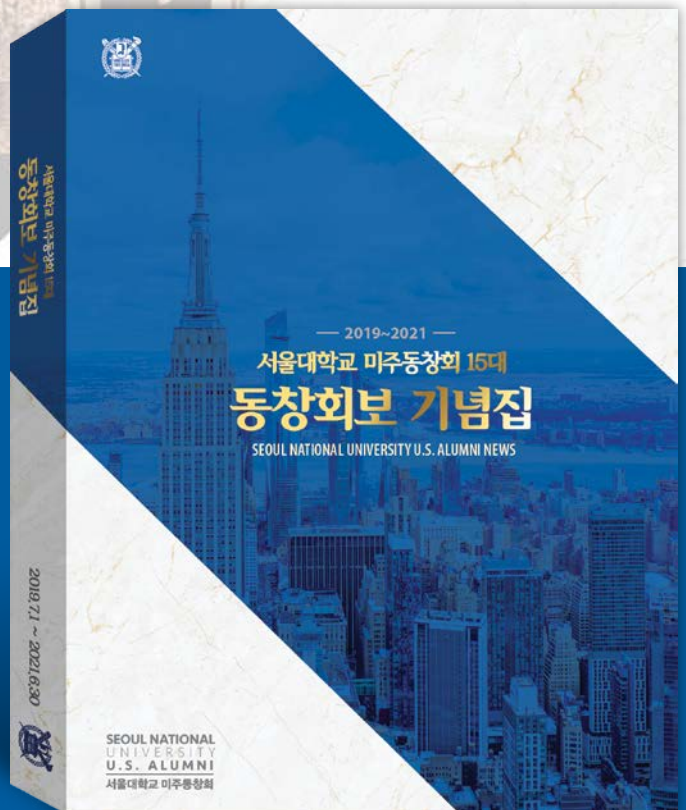
제 15대 임기의 2년간의 여정이 막을 내립니다.
그동안 애정어린 관심과 후원을 보내주신 동문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새로운 회기를 시작하는 16대 회장 및 임원진들에게도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 15대 미주동창회장 신응남 및 임원일동

제15대 임기 동창회보 기념집이 출간됩니다

이번 15대 동창회(회장: 신응남)에서는
임기중 발간된 회보를 묶어 오는 6월 기념집을 출간할 예정입니다.
필진 및 동문들 중 원하시는 분은 동창회로 연락 바랍니다.

*소정의 우송료가 있습니다.



S N U A l u m n i A s s o c i a t i o n U S A

158-14 Northern Blvd. 2nd Floor, Suite UL-2, Flushing, NY 11358 Tel: 718-463-3131 Fax: 718-463-6789 news@snuua.org